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강 영 훈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김 용 철

2004년 7월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 4

제2장 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

제1절 축제의 개념체제 ····· 6

1. 축제의 개념 ····· 6

2. 축제의 분류 ····· 9

3. 축제의 효과 ····· 13

제2절 축제 평가의 논리 ····· 18

1. 축제 평가의 의의 ····· 18

2. 축제 평가의 방법 ····· 21

제3절 지역축제의 현황 ····· 23

1. 세계의 지역축제 ····· 23

2. 우리나라의 지역축제 ····· 27

3. 제주지역 축제 ····· 48

제4절 선행 연구 동향 ····· 56
1. 국외의 선행연구 분석 ····· 56
2. 국내의 선행연구 분석 ····· 59

제3장 연구 설계 ····· 66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설정 ····· 66
1. 연구모형 ····· 66
2. 연구가설의 설정 ····· 67
제2절 연구조사설계 ····· 67
1. 설문의 구성 ····· 67
2.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 68
3. 자료분석방법 ····· 69

제4장 실증분석 ····· 71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71
제2절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 72
1. 타당성 분석 ····· 72
2. 신뢰성 분석 ····· 75

제3절 가설 검증 ····· 75
1. 가설1의 검증 ····· 75
2. 가설2의 검증 ····· 80
3. 가설3의 검증 ····· 82
4. 기타 분석 ····· 84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 94

제5장 결 론 ····· 96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1

설 문 지 ····· 103

표 차례

<표 2-1> 서양의 축제관련 용어 ····· 8
<표 2-2> 축제의 분류 ····· 10
<표 2-3> 축제에 관한 학제적 연구의 개요 ····· 22
<표 2-4> 세계의 지역축제 ····· 25
<표 2-5> 2003년 문화관광축제 공통평가항목 ····· 32
<표 2-6>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만족도 비교 ····· 35
<표 2-7> 2003년 축제별 만족도 비교 ····· 36
<표 2-8> 2003년 문화관광축제 지출항목별 소비지출 ····· 38
<표 2-9> 2003년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39
<표 2-10>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소비지출 ····· 40
<표 2-11> 2003년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기별 소비지출 ····· 41
<표 2-12> 2003년 축제별 소비지출 ····· 42
<표 2-13>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상반기) ····· 43
<표 2-14>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하반기) ····· 44
<표 2-15> 제주도 지역축제 현황(제주시) ····· 48
<표 2-16> 제주도 지역축제 현황(서귀포시) ····· 50
<표 2-17> 제주도 지역축제 현황(남/북제주군, 각 기관) ····· 53
<표 3-1> 설문의 구성 ····· 68
<표 3-2> 연구의 실증조사 방법 및 범위 ····· 69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71

<표 4-2>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74
<표 4-3> 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t-검증 ……76
<표 4-4> 연령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차이분석 ……77
<표 4-5> 학력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차이분석 ……78
<표 4-6> 직업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차이분석 ……79
<표 4-7> 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t-검증 …80
<표 4-8> 연령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차이검증 81
<표 4-9> 학력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차이검증 81
<표 4-10> 직업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차이검증 ‥82
<표 4-11>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이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83
<표 4-12> 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차이분석 ……84
<표 4-13> 연령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차이분석 ……85
<표 4-14> 학력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차이분석 ……88
<표 4-15> 직업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차이분석 ……90
<표 4-16>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빈도분석 ‥92
<표 4-17> 제주지역 축제전문기구 설립에 관한 빈도분석 ……93
<표 4-18>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통폐합방안에 관한 빈도분석 ……93
<표 4-19> 가설검증의 요약 ……94

그림 차례

<그림 2-1> 이벤트 축제의 다각적 관점모델 ····· 14
<그림 2-2> 2003년 문화관광축제 외래관광객 비율 ····· 30
<그림 2-3> 2003년 문화관광축제 방문동기 중 축제관람 비율 ····· 31
<그림 2-4> 2003년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비교 ····· 34
<그림 3-1> 연구모형 ····· 6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란 오늘날 경제영역에 있어서 범지구적 스케일의 변화를 가리킨다. 범지구적 경제의 변화는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의 기본단위가 되는 기업의 조직과 경영의 공간적 범역이 문자 그대로 세계 전체에 확대됨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자국기업에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지원하여 그들이 세계적 기술계층의 상위권에 올라설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각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적 측면의 고유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내생적인 산업기술혁신의 소지를 만들고 독특한 시장문화를 조성하여 사람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 특히, 각종 축제와 이벤트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정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1995년 민선지방정부 출범 이후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역문화에서 찾아내고, 이렇게 확인되거나 발굴된 문화적 자원을 문화산업으로 연결하려는 문화산업화 전략이 지역발전 전략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축제와 이벤트이다.[1)]

오늘날의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세대에 걸쳐 축적해 온 지역의 신화나 종교 또는 제의 등의 고유문화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정례행사이며, 지역민의 단합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1) 김병철, 「강원도 문화관광축제 실태분석 및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1, p.1.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민의 참여 하에 고유의 전통문화가 재현된다면 관광객에게는 그 지역의 역사와 독특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2]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그 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설화, 자연물, 테마의 발굴 등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방정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은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image)를 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단합과 지역문화의 발굴 및 체계화,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국제간 문화교류 촉진으로 인한 지역개발 잠재능력의 현재화 등 다양한 편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다.[3]

지역축제는 관광행동을 촉발시킬 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으므로 뛰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진다. 즉,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심각한 과속화 현상을 겪는 지역일수록 지역축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커지게 되므로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축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축제 가운데 많은 수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채 많은 예산만 사용한 소비적인 축제라는 지적[4]과 함께 프로그램의 차별성 문제도 자주 논의되며,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비판의 소리도 있다.

---

2) 오순환, “문화관광축제의 연상도 차이-축제명과 지명간의 연상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제23권 제1호, 1999, p.213.

3) 이장주·조현상,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화에 관한 실증연구-우리나라 6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제24권 제1호, 2000, p.206.

4) 서휘석·이동기, “물리적 환경이 지역축제의 만족과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자치 동계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p.69.

따라서 어떤 방문객 층을 대상으로 어떤 축제를 실시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 버리기 쉽다.[5] 축제는 공급자인 축제 조직자가 수요자인 축제 방문객들의 변화되는 기호 및 욕구를 더욱 깊이 고려해야 하는 수요자 지향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광목적지로서 섬은 만국박람회 또는 올림픽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전략들 특히 홀마크 이벤트(hallmark events)의 개최를 지향해야 한다. 섬 관광지의 이벤트들은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중요성, 강력하고 개방적인 이미지, 가능한 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섬 관광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축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축제의 개발과 운영은 미흡하다.

축제 경쟁력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창성 부재로 인한 축제간의 차별화 미흡, 전문축제 기획 및 운영인력의 부족, 그리고 질적인 측면의 경쟁력 부재 등 관광자원으로서의 상품성 및 매력도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실시 이후 자치단체마다 산발적인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효용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축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제주지역 축제와 관련된 정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심층적 현황분석과 함께 대안도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능력요인, 대외협력요

5) 고승익 외 3인, “축제 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98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제23권 제2호, 2000, p.247.

인,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요인, 제도적 지원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본다.

둘째, 현재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기획능력요인, 대외협력요인,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요인, 제도적 지원요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현재 제주지역 축제에서 필요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표적시장에 따른 마케팅 활동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역축제는 처음부터 널리 관심을 끌거나 호화스런 것이 아니었으며 큰 재정이나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특수화된 이미지 관리를 통해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재방문이 증가되면서 축제가 대형화되고, 관광지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축제만으로도 엄청난 매력성을 띨 수 있게 되었다. 지역성과 향토성 등 지역문화를 잃어버린 지역 축제는 축제로서의 매력성을 잃게 되고 만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를 활성 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객관성, 경험성, 보편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문헌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축제에 관련된 현상의 규명과 관광학의 이론적 개념 및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이론의 검토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민속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관광학 등의 다학제적 접근에 의한 이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실증적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선정된 30개의 문화관광축제 관련요

인 측정문항에 검토를 거쳐 표현상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와 문화관광축제 측정에 부적절한 문항 등을 제외한 후 24개의 변수와 인구 통계적 변수, 만족도 변수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및 관광관련 학계, 공무원, 축제기획가 및 전문가, 관광관련업자, 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2004년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48일 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설문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임의표본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설정하였다.

제2장 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축제의 개념체제

1. 축제의 개념

축제는 성스러운 종교적 의식에서 출발한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로 종교적 신성함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유희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 전통적인 축제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날의 축제도 분명히 축(祝)과 제(祭)가 어우러진 종합적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축제의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는 축제라는 용어가 고대 부족구가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가 아닌 신조어일 것이라는 추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축제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갖춘 본격적인 축제의 시원(始原)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6] 다만 노래와 춤을 비롯하여 예술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축제라고 한다면 민속예술의 기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제천의례가 우리 축제의 당초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의는 풍년과 풍요, 안전, 행복, 치병, 죽은 자의 천도와 위업계승, 혈통의 보전 등을 위해서 발상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실천화시키기 위하여 주술적이고 모의적이고 주술적이고 가장적인 행위가 제의의 방식을 형성시키게 되었다. 제의적 행위는 그 자체가 기원의 표상이자 참가자들에게는 오락이

6) 김명자,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관광부, 1996, p.14.

며, 실제로는 연희와 놀이로 형식화되기에 이르렀다.[7)]

부여의 정월 영고, 고구려의 10월 동맹, 동예의 무천, 마한의 5월과 10월의 제천의례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 한국적 축제이다. 이때의 제천의례는 신성한 종교의 장이자 공동체의 놀이판으로 먼저 천신에게 제사를 드려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으며, 음주가무와 놀이판을 벌여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축제의 고형(古形)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굿판, 세시명절(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때 남녀노소가 한 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먹거리, 놀거리판을 형성했던 세시풍속이나 민속놀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풍요의 상징성을 지닌 제천의례와 화합과 단결·액운퇴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민속놀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8)]

축제에 관한 저명한 이론가인 프레데릭슨은 '축제(festivals)란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 또는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사는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마디로 축제란 삶의 현실이 문화예술과 결합하여 제도화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9)]

게츠(Getz)[10)]는 포괄적 의미로 '축제는 일반대중을 위한 주제를 가진 기념의식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콕스(Cox)[11)]는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라고 보았다. 콕스는 이 정의에서 허용된 기회는 본질적으로 3가지 요소, 즉, 고의적 과잉성(환락을 추구하는 행위), 축의적 긍정성(기본적으로 생을 긍

---

7) 임재해, 「한국의 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4, pp.279-285.
8) 이상일, 「한국축제의 기능과 구조」, 비교민속학, 집문당, 제9집, 1992, p.19.
9) 노연봉, 「수원성곽축제 활성화 방안」, 2001, p.13.
10) 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 Tourism*, New York: NVR, 1991, p.16.
11) H. Cox, The Feast of Fools; A Theological Essay on Festivity and Fantasy, Cambridge, Mass., 1969, pp.7-12. 재인용.

정한다는 자세), 대국성(일상생활과 대조적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의 축제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놀이, 휴가(休暇)와 관계되고 자신들의 전통문화에 그 기원과 뿌리를 둔 경우가 많지만, 새로 생겨난 축제들도 대부분 해당 공동체 사회의 문화전통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사는 행위'로 정의된다. 축제라는 말 자체에는 놀이와 제의를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도 축제는 종교적인 요소를 일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축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종교적 신성성을 지닌 의례와 놀이를 가지는 공동체의 집단행위라고 할 수 있다. 축제와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스티벌(festival)을 비롯하여 몇 가지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와 같다.[12]

<표 2-1> 서양의 축제관련 용어

용 어	사전적 의미	특 징
festival	축제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제의
rite	의례	ritual과 거의 같은 의미
ritual	제의	전통적 구속력이 다소 강함
ceremony	의식	비종교적인 의례
cult	숭배	원시・고대종교에서의 예배
worship	예배	cult와 같이 개인적인 신앙이 강함
sacrament	가톨릭 성사	

자료원 : 이은봉, 「놀이와 축제」, 1982, pp.40-41.

12) 노연봉, 상게서, p.14.

페스티벌 외에 많이 쓰이는 용어로는 카니발(carnival)이 있다. 우리말로 '사육제(謝肉祭)'로 번역되는 카니발은 많은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 사순절 직전 수일에 걸쳐 펼쳐지는 축제를 말한다. 이는 사순절 전에 집안에 있는 고기를 모두 먹어 치워버리는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축제, 축전, 제전, 놀이, 잔치 등이 비슷한 의미로 함께 쓰이고 있다.

2. 축제의 분류

오늘날 축제는 각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바탕 위에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문화란 지리적으로 배타적인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개인 및 집단노력을 통해 취득하고, 수 세대에 걸쳐 누적된 지식, 경험, 의미, 신념, 가치, 태도, 종교, 자아개념, 우주, 자아-우주관계, 지위의 위계질서, 역할기대, 공간관계 및 시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축제는 수 세대에 걸쳐 내려온 문화라기보다는 경제적 효과를 모색하기 위한 지역축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목적, 시간, 형식 등에 의해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연구되어온 축제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축제의 분류

분류기준	축제종류
개최목적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행사내용/구성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자원/주제형태	농업특산물축제, 전통공예축제, 꽃축제, 음식축제, 연극축제
개최목적	내부지향형(내향형 전통축제, 내향형 현대축제), 외부지향형축제
역사적 시점	전통축제, 현대축제
공간적 측면	지역축제, 초지역축제

자료원 : 연구자 재작성

(1) 개최목적에 의한 분류

개최 목적에 따라 지역축제는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민화합축제는 주로 해당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온 전통 문화축제를 비롯하여 최근에 많이 개최되기 시작한 구민의 날이나 시·국민의 날을 기념하여 벌이는 축제를 말한다.

관광축제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로서 문화관광축제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축제는 비교적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관광축제를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 즉 농림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특수목적 축제는 환경보호 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는 축제 등을 포함한다.

(2) 행사내용과 구성형식에 의한 분류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내용의 구성형식에 따라 분류한 전통문화축제는 지역의 전승설화나 풍습에 유래하여 개최되는 축제로 전통적인 제례의식, 전통예술 및 민속놀이 위주로 구성된 축제를 가리킨다. 예술축제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현대적인 전시예술 및 공연예술 위주로 구성된 축제로 서구 문화적인 축제를 말한다. 종합축제는 전통문화 축제형식, 예술축제 형식, 체육행사 및 오락프로그램 등이 혼재되어 있는 축제를 이른다. 기타축제는 추모제, 기원제, 가요제 및 노래자랑대회, 아가씨 선발대회와 같이 단일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13)]

(3) 자원과 주제형태에 의한 분류

자원과 주제형태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농업특산물, 전통공예 특산물, 기후, 지형적 특성, 꽃(식물), 음식, 음료, 문화(연극/영화) 등은 축제의 자원으로서 주제가 될 수 있다.[14)]

(4) 지향성에 의한 분류

축제의 지향성을 기준으로 지역축제를 유형화하면 축제의 개최 목적이나 목표대상에 따라 내부지향형과 외부지향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내부지향형은 축제의 소재나 프로그램 형식에 의해서 내향형 전통축제와 내향형 현대 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지향형도 외향형 전통축제와 외향형 현대축제로 분류

13) 문화관광부, 「'96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1996.
14) 정강환,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Vol.11, No.3, pp.59-82.

할 수 있다.

내향형 축제는 지역주민의 지역귀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역의 전통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내향형 현대축제는 현대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축제로 지역 주민의 화합,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 등 사회문화적인 목적을 가진 축제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

외향형 전통축제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형식의 축제로서 지역 경제에 대한 축제의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가리킨다. 외향형 현대축제는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현대적 소재로 구성된 지역축제로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벚꽃 축제, 섬문화 축제, 경주 엑스포 등을 들 수 있다.[15]

(5) 역사적 · 공간적 시점에 의한 분류

역사적인 시점에서 축제는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대별되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축제와 초지역적인 특별축제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지역축제를 종전에는 민속축제, 전통축제, 향토축제, 향토문화제, 향토문화축제 등으로 불러왔다.

향토문화란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형성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말한다. 그런데 향토문화축제라는 용어가 고향이라는 낭만적인 선입견으로 인하여 고장중심의 이해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자기 고장중심의 향토문화는 지역간의 갈등과 지역감정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이라는 가치중

15) 정두진 외, 「관광이벤트」, 학문사, 2001, pp.49-51.

립적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요즘은 지역축제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 같다.

전통축제는 그 제의시기, 제의지역, 제의, 담당층, 제의목적, 연행방식,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 왔으며 혼용된 명칭도 많다. 또한 전통축제는 주로 전통적인 지역축제로서, 개화기 이후 흔히 향토축제로 지칭되어 왔다. 향토예술, 향토예능, 향토민속놀이 등과는 상통하는 개념이다.[16]

3. 축제의 효과

각 지역의 축제 개최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것이므로 축제로 인한 큰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축제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사회·문화적 효과, 정치적 효과, 교육적 효과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축제는 유희와 제의라는 두 가지 성격이 중요한 축이 된다. 이 대 축제가 놀이로서의 특징만을 강조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소비적인 행위일 뿐이다. 반면에 제의로서의 특징까지 포함한 축제는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요, 삶의 풍요를 위한 문화적 기폭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축제의 의미는 카오스, 즉 혼돈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혼돈은 무질서의 상태이긴 하지만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극복의 과정과 질서의 순환과정을 갖는다. 제의와 일이 질서의 차원이라면 축제의 다른 요소인 놀이는 무질서로서 오르기(orgy), 즉 난장이 존재한다. 동체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상태로부터 이탈하는 해방의 자유, 신명의 상태이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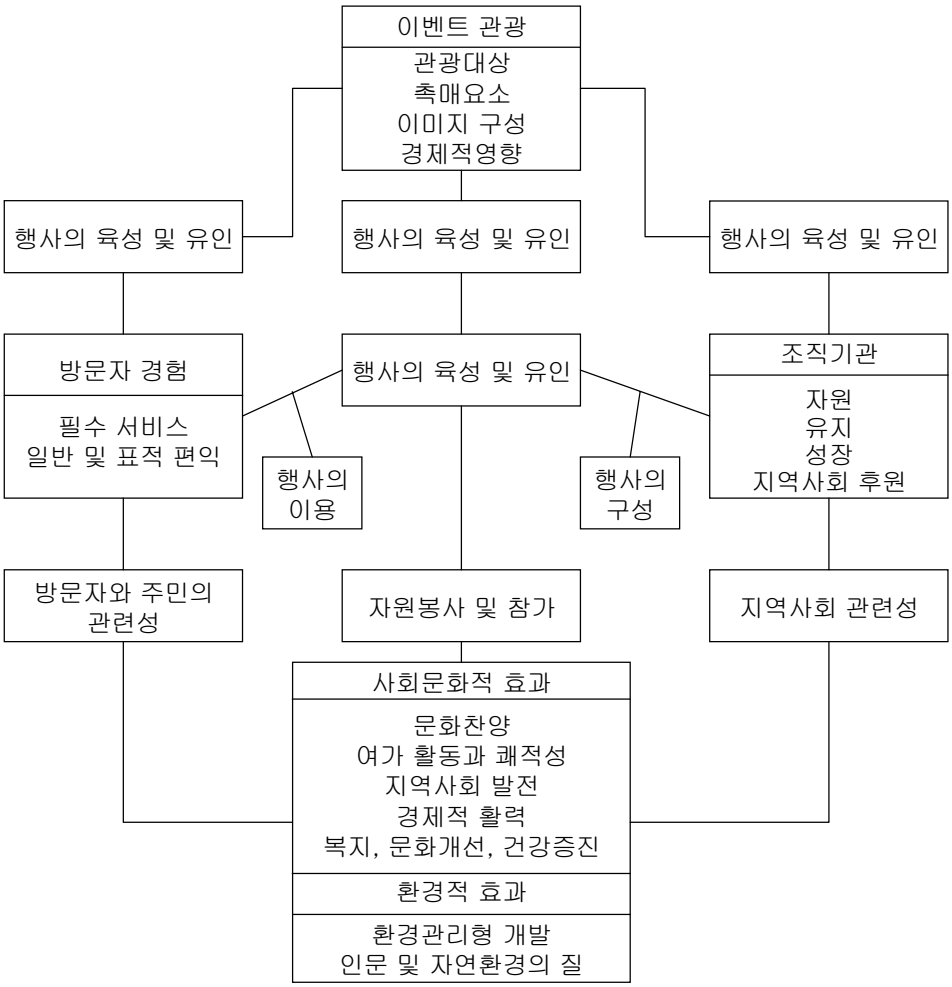
---

16) 서연옥,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영문화재단주최 세미나초록집」, 1994, p.20.

17) 이상일, 「놀이에 나타난 집단창작의욕」, 문화재관리국, 1982, pp.58-60.

즉 축제를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2-1> 이벤트 축제의 다각적 관점모델



자료원 : 정강환,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3호, 1996, p.62.

<그림 2-1>은 축제를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관점에서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5가지의 구성요소를 도식화한 게츠(Getz)의 다각적 관점 모델(A Model of Perspective)이다. 지역 축제의 관광자원화의 목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의 방문객들을 유인하는 관광대상(tourist attraction)의 역할 수행, 이벤트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구축,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역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경제적 영향 등을 들 수 있다.[18]

이와 관련하여 지역축제가 지역주민과 개최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졌으며 각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축제의 개최 효과를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는 축제의 다양한 효과를 이해하는 것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적 효과

1) 이벤트 상품 개발의 비용절감 효과

지역의 이벤트 관광상품 개발은 기존의 여타 관광대상을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cost-effective)'가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특히 관광자본력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비용 절감 효과라는 것은 자원자들에 의해 무상 제공되는 노동력과 지역주민 그룹 참여로 대부분의 향토축제 및 지역이벤트가 유지됨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와 이벤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 예술, 관습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많은 투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특별한 시설이나 도로, 전기, 하수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발생된 초기기반 투자비용 절감효

18) 정강환,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3호, 1996, p.62. 재인용.

과 등을 일컫는다.[19]

더구나 이름 있는 축제들은 공공기관이나 개인기업으로부터 기업 스폰서쉽을 쉽게 유치하여 많은 비용을 더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벤트 관광상품의 장점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개발하려 할 때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축제가 있어 개발잠재성이 높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 축제의 관광경제적 효과

축제나 이벤트가 잘 개발된다면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경제효과는 엄청난 경우가 많다. 독일의 맥주축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10월 축제(Oktoberfest)'는 매년 평균 600만명의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뮌헨으로 몰리고 있으며, 1993년 축제로 벌어들인 수입만 하더라도 약 1백억 마르크(5조원)수준으로 1993년 우리나라에 전체 외국관광객들이 쓰고 간 관광지출의 약 2배 수준이다.[20]

대형축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지역축제의 경우도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Oklahoma City)의 예술 협의회의 1987년 통계에 의하면 예술행사 개최와 미술관 등의 예술적인 관광유인물을 통한 시의 관광수입은 무려 8천 8백만 달러에 이르며 그 중 미술·공예 및 각종 축제로 인한 이벤트 수입이 총 관광수입의 38%를 차지한다. 예술 이벤트 참가객 중 약 26%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캐나다의 앤티고니시(Antigonish)지방의 '하이랜드 게임(Highland Games)'이나 다른 문화 축제를 보러 온 방문객들이 이 지역의 일반 관광객들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 관광국의 자료에 의하면 하이랜드 게임 등의 이벤트 방문객은 평균 체재일수가 9.65일이고 일반 관광객들은 6일이며, 관광지출면에서도 이벤트 방문객들이 평균 948달러를 쓴

19) 정강환, 「이벤트관광전략 축제와 지역활성화」, 일신사, 1996, p.38.
20) 이광희,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서 관광개발」, 한국관광학회, 1994, pp.34-58.

반면에 일반 관광객들은 450달러를 썼다. 이벤트 방문객 중의 약 26%는 이 지역을 방문한 이유가 '이벤트' 때문이라고 답했고 거의 68%는 유명한 특정 하이랜드 게임을 보기 위해 앤티고니시 지방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이로써 이 하이랜드 게임이 이 지역의 연중 중요한 관광성수기를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21]

(2) 사회·문화적 효과

1) 지역축제의 지역 이미지 창출효과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매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와 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성공사례들도 많이 있다. 영국의 글래스고우(Glasgow)는 1960년대 침체된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1990년 유럽의 문화도시(European Cultural Capital)로 지정되는 영광과 함께 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된 배경에는 각종 예술·문화이벤트, 가든 페스티벌, 미술관, 박물관의 특별전시회 등의 범도시적 차원의 이벤트관광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22]

지역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광고 및 홍보물 제작에서 지역의 축제가 주로 포함되는 이유가 축제와 이벤트 자체가 매우 화려하고,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특히 시각광고매체에 최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축제와 이벤트의 이미지가 지역문화의 무형적인 측면이 유형적으로

---

21) 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 Tourism*, New York: VNR, 1991, pp.37-57.

22) C. Law, *Urban Tourism: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 London: Cassell Publishing, 1994, pp.17-32.

나타내는 데 유용하고 지역문화 활동이 다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농촌지역은 도시 이농현상으로 점차 비어있는 곳, 한적한 곳, 경직된 곳 등의 이미지로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잠재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의 어떤 독특한 면을 찾기 어렵고, 방문매력이 없는 곳이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전승되어 오는 축제나 지역 이벤트를 통하여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역동적인 면이 있으며, 또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란 긍정적인 문화관광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대다수의 축제들은 그 내용적 요소로써 문화·예술을 선택한다. 많은 축제들은 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가 문화·예술적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축제의 활성화는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별히 관광자원 요소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들을 기초로 한 지역문화관광축제는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동안 소수의 문화적 엘리트 계층만이 향유하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착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다.[23]

제2절 축제 평가의 논리

1. 축제 평가의 의의

현대관광의 특색은 사회·경제 조건의 급속한 변동과 관광현상이 대량 발

23) 고승익·문성종·부석현·진현식, 「관광이벤트경영론」, 백산출판사, 2002, p.82.

생하면서 관광의 경제 및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 또한 날로 증대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관한 논의가 많아졌다.

축제는 관광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관광매력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견해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광행동을 촉발시킬 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으므로, 뛰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진다. 즉,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심각한 과속화 현상을 겪는 지역일수록 지역축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커지게 되므로 이미 만은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현실이다.

축제와 관련된 재현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주도의 축제가 독특한 주제를 갖지 못하고 지역민만이 먹거리를 즐기는 장이 마련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 지역축제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지방에는 현재 400여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축제를 세계적 관광축제로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민간업체, 지역주민이 해야 할 책임을 부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축제 평가는 관광객만족 평가와 재방문 및 추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으며 이는 각각의 축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축제는 특이성을 가지고 새로운 매력물로써 재생산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연되고 있는 축제의 수가 매우 많으며 각각의 축제를 특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축제의 내용이 겹치거나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축제의 평가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축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각각의 축제가 각기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의 세계화·지방화 시대라는 환경적 요인

과 이벤트 관광의 시각을 고려하여, 조직적·경제적·관광적 마케팅 측면의 최종 목표에 초점을 둔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즉 최종 목표는 수년간의 축제 조직체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것이어야 하지만 축제 활동에 한정적인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유동적인 면도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최종 목표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축제의 내용 중 관광객 참여 이벤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평가는 필요하다. 관광객의 최근 성향이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을 이벤트화하여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과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유명한 축제의 이벤트를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제 참여자의 욕구의 변화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축제 평가 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축제의 차별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는 필요하다. 현재 지역축제는 타축제와 소재만 다르고 내용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무절제한 벤치마킹으로 각각의 지역축제가 비슷해지고 결국 서로에게 피매한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는 유사행사 기획을 자제하고, 지역간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행사를 지양하며, 중복되는 지역축제를 공동개최 및 통폐합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도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축제평가는 필요하다. 지역축제는 지역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먹거리 상가만이 이익을 얻고, 현실적으로 지역소득이 증가하는 역할을 확실히 해내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축제의 경우 캐릭터 및 이미지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캐릭터는 해당 축제의 상징물이자 강력한

홍보 이미지를 대외에 표출할 수 있는 요소이며 판로개척의 첨병 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축제 참가자들의 욕구 및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근 시·군과의 전략적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축제안내체계를 개선하며 전반적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데에도 지역축제 평가는 필요하다.

2. 축제 평가의 방법

관광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를 규명하는데 많은 학문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듯이 축제와 관광대상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규명하고 평가하는데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의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축제의 개념 및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속학, 사회학 등의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민속학에서는 향토문화의 역사성, 전통성, 민속성, 지역성 등에 대한 의미와 역할, 그리고 제의와 축제의 기원과 전승 및 발전 과정에 대한 해명을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도시사회학, 축제사회학, 생활사회학적 접근으로 축제의 특성과 현화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축제의 의의와 역할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역개발론, 환경심리학, 지리학 등의 학문적 입장이 동원될 수 있다. 문화심리학이나 환경심리학의 관점에서 축제나 이벤트에서 추구되는 목적, 기득효과, 인간의 군집본능과 행동양식 등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지리학적 입장에서는 문화권역의 설정 시 요구되는 지질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의 활성화와 행사 발전방안에는 자원개발론, 마케팅론, 관광계획·개발론의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참여자들의 의견, 행태, 행사 진행상황 등은 조사방법론에 따른 조사기법,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및 보고가 행해진다. 다시 말하면 다학제적 접근방식(multi-interdisciplinary approaches)으로 관광대상

화를 통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 및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표 2-3>는 학제적 연구에 대한 학문간의 관계와 적용부문에 관한 정리이다[24].

<표 2-3> 축제에 관한 학제적 연구의 개요

기존 학문 분야	응용분야	적용 부문	관광부문의 각론
민속학 (문화인류학)	민속축제론, 놀이론	개념, 기원, 전승, 발전과정	관광론
사회학	도시(지역)사회학 축제사회학 생활(여가)사회학	지역문화와 축제 축제와 이벤트의 특성 만남과 교류	관광사회학 관광문화론 관광·여가론
심리학	환경심리학 이미지론 문화심리학	축제·놀이 인간의 심리와 행태 욕구, 학습, 태도형성	관광심리학 관광사회심리학
지리학	지질론, 인문지리	문화권역의 설정	관광지리학
경제학	미시경제이론	관광상품의 효용변수	관광경제학
문화론	비교문화론	지역별·국가별 문화비교 인종별 문호의 차이	관광문화론 국제관광론
자원론	자원개발·계획	관광자원화 방안	관광자원론
마케팅론	촉진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관광머천다이징 마케팅 컨셉의 적용 촉진방안	관광마케팅론 관광행동론
조사방법론	사회조사법 통계분석법	자료수집 분석·정리·보고	관광조사론

자료 : 감두중, “한국 향토문화제의 관광대상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52.

24) 감두중, “한국 향토문화제의 관광대상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52-53.

제3절 지역축제의 현황

1. 세계의 지역축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민속축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난 환상의 세계에서 잊어버렸던 원초적 세계와의 접촉으로 사람들의 정신과 생활에 생명력과 활력을 주는 의도된 해방과 일탈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외국의 이러한 고유한 축제들은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아울러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게 되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축제들은 특별한 이벤트 여행(S.E.T)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의 민속축제를 동양과 서양의 문화권으로 양분한다면, 동양문화권의 축제들은 비교적 고대 제의(祭儀)·역사적(歷史的) 성격의 축제들의 잔존하여 농경사회에 기저를 둔 것이 많으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서양의 현대적 성격이 강한 축제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한편 서양문화권의 축제들은 전통에 바탕을 둔 민속 축제보다는 제반 분야의 예술과 농업관련 및 행렬식 축제가 주종을 이루어 전반적으로 산업·예술 문화적 성격의 축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의 오랜 전통을 가진 축제가 있는 반면 각 지역의 생활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의 축제도 있다.

지역축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거대화·일반화·상품화의 경향을 띠어가고 있다.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하던 축제가 지역을 벗어나면서 축제의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고, 특정 지역의 축제가 일반화하면서 지역적 특성이 사라지게 되고 지역민의 참여 의지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축제로서 출발했던 축제가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축

제로 명소화 된 곳도 많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삿뽀로 눈축제, 홍콩의 용선제, 대만의 등불 축제, 중국의 국제 소림무술제, 태국의 송크란 축제, 프랑스의 니스카니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독일의 뮌휀 맥주축제, 미국 페사디나의 로즈볼 축제, 캐나다 퀘백의 겨울축제 등을 들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지역축제는 지역특성을 철저히 파악하여 지역 내의 자연자원, 인공자원, 역사·문화자원, 산업관련자원, 인적자원 등에 대해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분석되어 연행되고 있다. 일본 삿뽀로 눈축제의 경우는 패전 후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들의 눈에 대한 애정에 착안하여 순수한 자연자원인 눈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이다. 또한 관광객들로 하여금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눈을 이용한 국제 눈조각 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지역민과 세계인의 화합잔치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도시 중심에 있는 에딘버러성이라는 역사자원을 야외 연극의 무대처럼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이태리 베니스 카니발도 베니스의 관광상징인 산마르코 광장과 주위의 역사적 건물들이 축제 방문객들의 가면이나 의상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배경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품화하여 타지역의 축제에 대하여 특성화를 시켰으며, 이를 정부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그 분야의 주제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축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의 참여와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현재 관광상품의 가치가 있는 축제행사(전통적인 민속축제와 현대축제)를 주제별로 특성화 시켜 각각의 지역축제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4> 세계의 지역축제

국가	행사명	행사성격 및 주요 행사내용
일본	삿뽀르 눈축제 (1950년에 시작하여 2월5일부터 28일까지 정기개최)	- 패전 후 시민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시민들의 눈에 대한 애정과 지역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 - 행사 전 시민참가 : 눈조각 제작 - 전야제 : 미스 삿뽀르 소개 및 각국 민속공연 - 국제 눈조각 대회
홍콩	Hong Kong Dragon Boat Festival (1976년에 시작하여 개최일 변동)	- 중국인들 사이에 수천년동안 전래되어온 민속 단오절 행사를 국제화하여 개발한 축제 - 중국본토와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에서도 개최되나 홍콩 용선제가 가장 크고 인기를 끌고 있음 - Kowloon의 침사추이 동해 앞바다에서 각종 보트 경기진행 - 단오절의 유래 : 기원전 2000년 이전 정부의 부패에 항거, 바다에 몸을 던진 굴원을 필사적으로 구하려던 어부의 배를 용선으로 재현한 것이며 용의 험상궂은 모습이 사악함을 쫓는다고 전해내려 옴.
대만	Lantern Festival (1990년에 시작)	- 대만의 외래객 유치부진 및 관광업 쇠퇴방지를 목적으로 교통부 관광국 주관으로 전통적 축제를 대형 이벤트화하여 개최 - 각종 민속공연 및 경기를 개최하여 국민축제 분위기 조성 - 현지 주재 NTO 및 외국 문화단체의 참여로 국제화 도모
중국	국제소림무술제 (2년에 한번 실시)	- 소림사 각 문파별 무술 경연대회 - 소림사 승려들의 무술 시범 - 승산 소림사 및 명승지 관광
태국	치앙마이 송크란 축제	- 축제일에 물을 뿌리는 풍속은 일년 중 최고 더운 시기(여름:3,4,5월)에 물로써 시원함을 찾으려는 지혜와 다가올 우기에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를 충분히 내려달라는 기원의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있음 - 물뿌리기, 태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 치앙마이시 전통문화클럽 - 미스 송크란 선발대회, 어린이 민속경연대회 -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시가행진 및 치앙마이 음식 대회

호주	Sydney Festival & Carnival (1978년에 시작하여 1월 중 약4주간 실시)	- 다양한 종류의 문화활동 등 약 500개 행사가 시드니 전역에서 개최됨 - '93년부터 이민자 Festival인 Carnival과 병행실시되어 호주사회의 다문화 주의를 널리 인식시키고 있음
프랑스	Nice Carnival (중세의 사육제에서 유래되어, 1873년 시의 후원으로 정식 행사로 정착)	- 18세기 베네치아 카니발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카니발 - 꽃마차 경연대회, 기마행진, 가장행렬, 빛의 행렬, 밀가루 전쟁 등의 프로그램 - '참회의 일요일(Mardi Gras)'인 사육제 최종일 카니발 황제가 화장되고 휘황한 불꽃놀이로 이어지면 카니발이 절정에 이름
영국	Edinburgh Tatto (1950년에 시작하여 8월에 정기개최)	- 영국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Edinburgh Castle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각국 행사단의 밴드, 전통 무용단, 기마단 등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퍼레이드 - 행사기간 중 에딘버러 전지역에서 주야간 퍼레이드 외에 다양한 문화 관광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어 수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함
독일	Oktoberfest (뮌휀맥주축제) (1810년에 시작하여 10월에 정기개최)	- 독일 최대의 축제로 해마다 6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맥주파티 개최 : 축제 기간 중 소비되는 맥주는 500만리터, 안주로 쓰이는 닭 65만마리, 소시지 100만톤 - 내국인이 즐기는 행사로 시작되어 외국인에게 파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됨
미국	The Pasadena Tourment of Roses Parade (1890년에 시작됨)	- 생화의 장미로 이루어지는 총 9킬로미터의 행렬 - 아침 10시 미국대학 축구 결승전이 개최되는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출발하여 콜로라도거리를 따라 벌어지는 2시간여의 거리행렬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 전세계 90여개국 방송사가 위성 또는 녹화 중계하며 시청자 수는 약 4억 2,500만명으로 추산
캐나다	Quebec Winter Carnival (1955년에 시작됨)	- 동부 캐나다에서 연중 가장 추운 기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종교적 사육제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축제이며, 겨울에 열리는 가장 큰 사육제 -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각종 격렬한 경기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내문화행사 관광상품화 방안」, 1995, pp.27-93. 참조.

2. 우리나라의 지역축제

최근 세계관광산업의 중요한 동향은 종래의 대중마케팅에서 개인의 관심사와 기호에 초점을 맞춘 개인마케팅으로의 전환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장소나 행사참관을 여행의 주 관심사로 하는 문화관광객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여행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관광형태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 두 가지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축제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제조업중심의 발전전략, 대규모적 공단이나 관광지의 조성, 하드웨어 중심적 개발 등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최근 들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증대되고 주민의 자치마인드가 성숙됨에 따라 전통산업의 부활, 지역별 차별화전략, 신규 산업개발, 지역축제 및 이벤트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진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관광축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25]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창되고 있는 문화관광진흥사업은 문화관광이 단순히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조세수입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문화예술의 촉매제로서 지방 고유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방문화예술계를 재건하고 지방문화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그 이익을 환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핵심동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축제관광객은 관광지출의 확대는 물론 재방문은 물론 체재기간의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역축제나 이벤트와 연계시켜 지역의 이미지 강화는 물론 관광

25) 삼성경제연구소, 「지역경제, 새로운 싹이 자란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0, p.15.

객의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인문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예술활동의 거점을 새롭게 형성하여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기능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가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는 목적은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 이벤트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우리 국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화관광축제는 우리 민족문화 또는 지역문화에 기초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참가와 숙식 또는 쇼핑 등의 행위를 통해 관광객들의 소비지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어야만 한다.

2003년도의 문화관광축제는 예년과 다른 점이 있었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가 23개 정규축제와 7개 예비축제로 이원화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예비축제 제도는 새로운 후보축제가 일정한 검증절차 없이 정규축제로 지정되던 방식을 지양하고, 우선 후보축제를 예비축제로 지정한 후, 일정기간동안의 운영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그 성과에 따라 정규축제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문화관광축제의 내실을 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에 의하여 정규축제와 예비축제 모두 각 축제의 주최측에서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 관광소비지출의 규모, 체험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각 축제추진위원회가 위촉한 평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 개별축제에서는 외지관광객 비율, 방문객 만족도, 소비지출규모, 방문동기 등의 공통평가항목을 의무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전체 축제기간으로 하였으며, 200매 이상의 유효표본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방문객의 응답은 7단계[⑦매우 그렇다 ↔①전혀 아니다]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사분석된 개별축제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정읍민속투우축제와 서귀포칠십리축제는 방문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남원춘향제와 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공통평가항목을 무시하고 임의로 항목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경하였고, 충주무술축제는 공통평가항목 중에서 일부 만족도 항목을 임의로 변경시키거나 누락시켰다. 따라서 이들 축제는 비교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평가기관별 설문조사 결과의 편차가 지나치게 컸다. 그리고 축제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 대부분 광역적 공간에 적용되는 산업연관분석류의 IO 승수를 무리하게 좁은 축제공간 및 한시적인 축제기간에 적용한 관계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방문객 설문조사 자료는 전체 축제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비교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별축제 차원에서는 본 자료가 훌륭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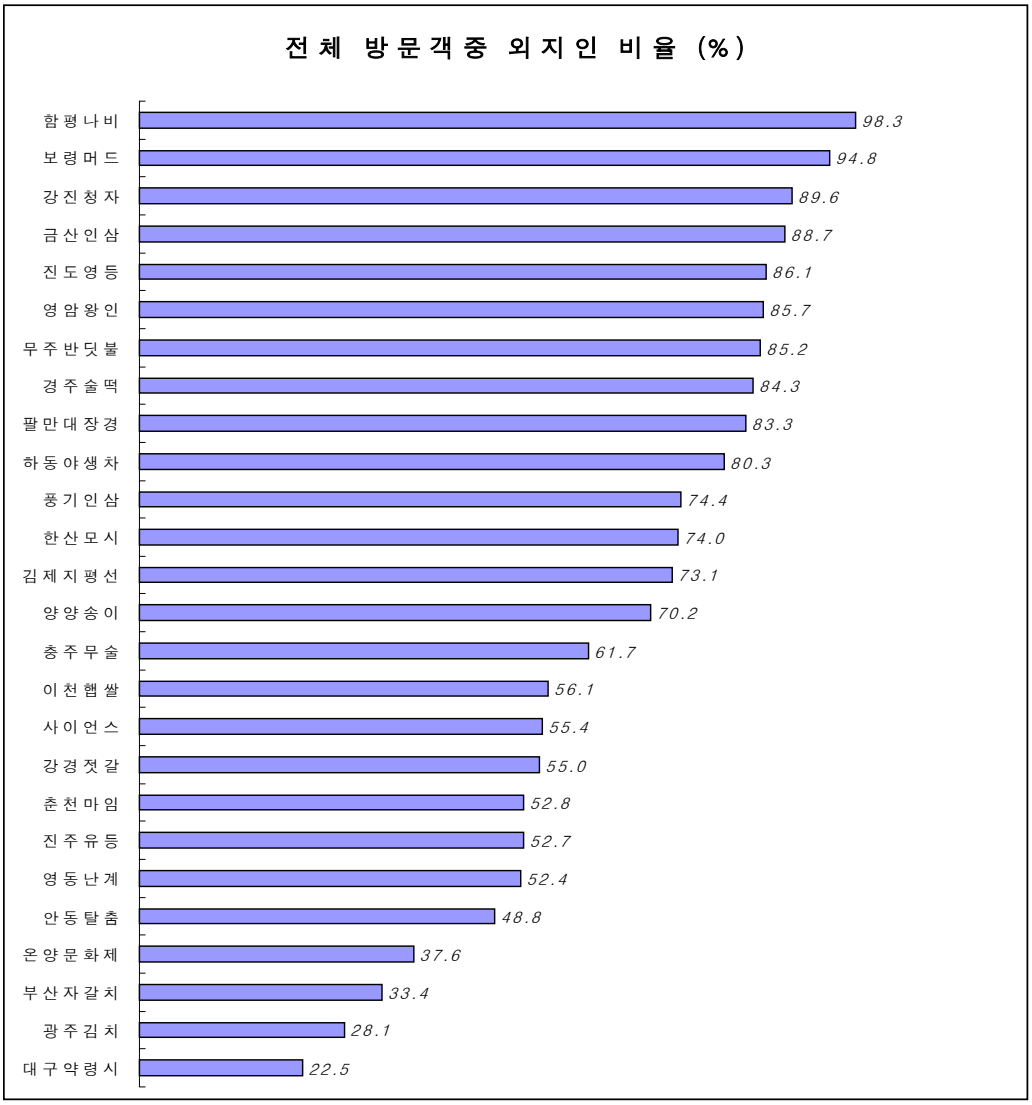
(1) 2003년 문화관광축제의 외래관광객 비율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 중에서 지역주민을 제외한 외래관광객(외국인 포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축제는 함평나비축제였으며, 보령머드축제가 뒤를 이었다. 반면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축제는 대구약령시축제, 광주김치축제,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등이었다.

그러나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는 아니다. 흔히 외래관

광객의 비율이 낮은 축제는 대부분 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이다. 광역시는 비록 행정상 구(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역이므로 일반 시군(市郡)처럼 인접 구(區)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외래인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2-2> 2003년 문화관광축제 외래관광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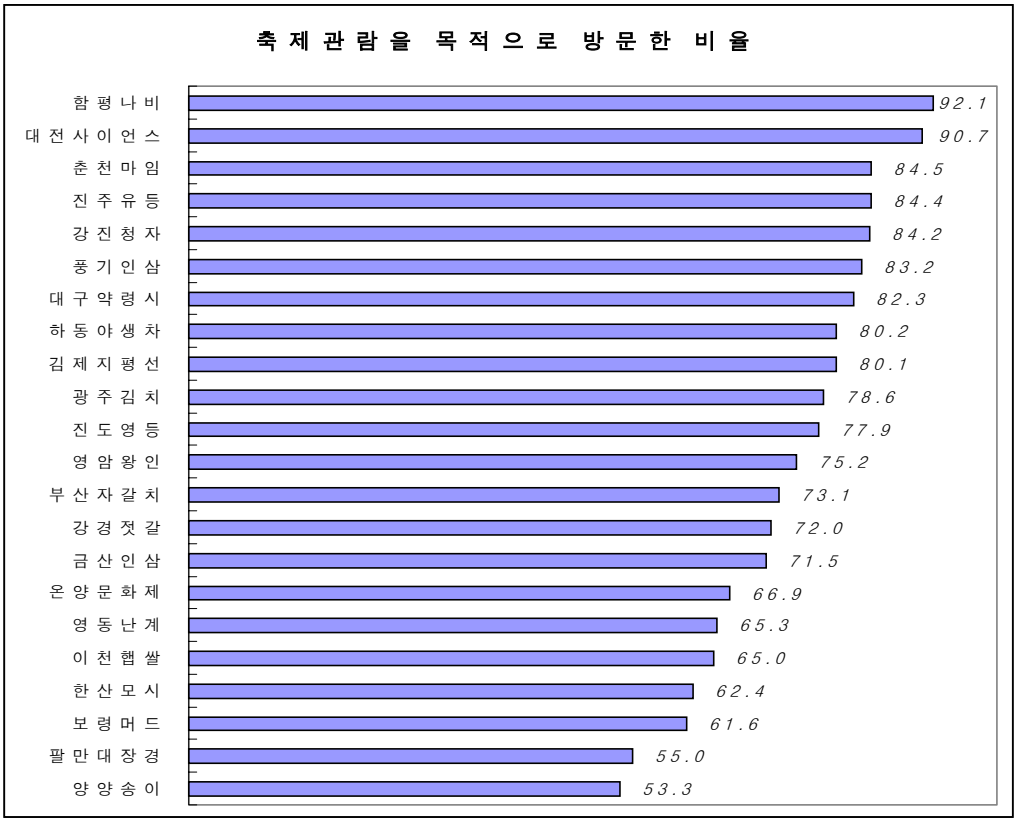


또한 입장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외래관광객 비율이 높은 축제는 역설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축제이며, 반대로 외래관광객의 비율이 낮으면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관광객 비율을 축제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척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방문동기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방문동기 중에서 축제관람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람들의 비율은 평균 74.5%로써 전년도의 76.7%와 비슷하였다.

<그림 2-3> 2003년 문화관광축제 방문동기 중 축제관람 비율



개별적으로는 함평나비축제가 9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90.7%를 나타내었다. 반면 양양송이축제와 합천해인사팔만대장경축제가 각각 53.3%와 5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축제관람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의 비율이 낮은 축제는 향후 홍보마케팅에 주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방문객 만족도

1) 공통평가항목

전국의 모든 문화관광축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방문객 만족도 공통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이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2-5> 2003년 문화관광축제 공통평가항목

설 문 조 사 내 용	약 칭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접근용이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다	사전홍보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있다	안내시설
행사안내 팜플릿이 잘 되어있다	안내책자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요원친절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행사재미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행사다양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한다	체험프로
행사내용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문화이해
축제 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상품다양
축제 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상품품질

<표 계속>

축제 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상품가격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음식다양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다	음식가격
행사장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도 방문할 것이다(방문했다)	연계관광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차편리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 되어있다	휴식공간
화장실이 청결하다	화 장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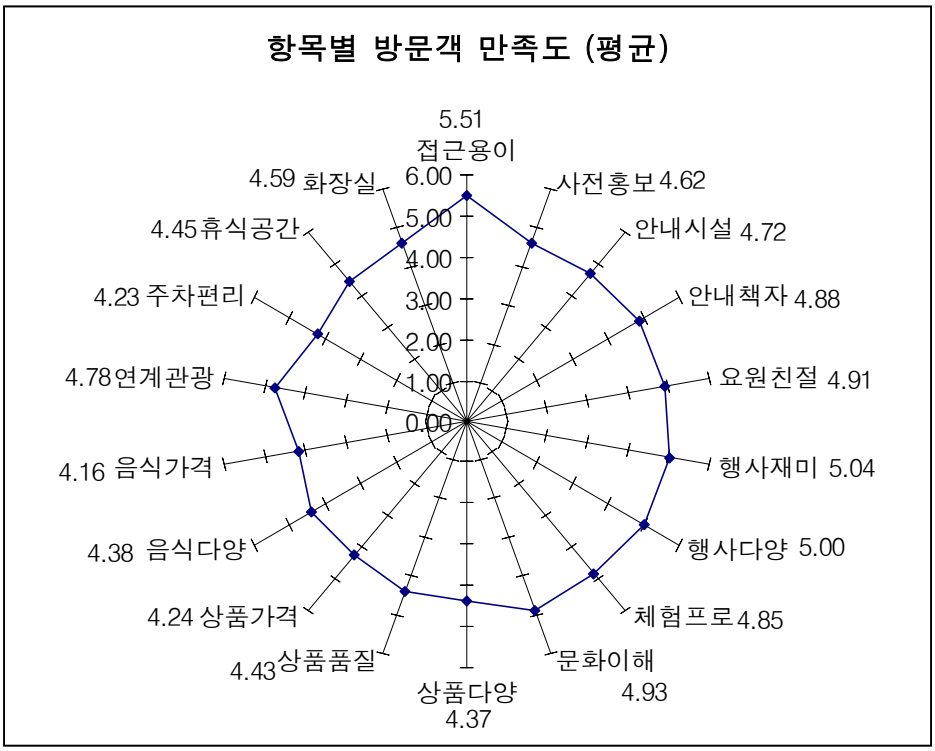
2) 항목별 만족도 비교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부문은 접근성으로써 7점 만점에 5.51점을 기록하였다. 이밖에 행사의 재미(5.04), 행사의 다양성(5.00), 지역문화의 이해(4.93) 등도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음식가격(4.16)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그밖에 주차의 편리성(4.23), 상품가격(4.24), 상품의 다양성(4.37), 음식의 다양성(4.38), 상품의 품질(4.43) 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축제의 본질에 해당되는 오락적 요소(재미와 다양성), 문화적 요소(정체성) 등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나, 축제의 목적에 해당되는 상품개발 측면은 여전히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향후 주최 측으로 하여금 축제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2-4> 2003년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비교



3) 연도별 만족도 비교

올해 조사분석된 방문객 만족도 자료를 2000년, 2001년, 2003년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개선 또는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의 이해부분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더불어 축제행사의 '다양성'과 '재미',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축제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화적 요소와 오락적 요소가 모두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으로의 '접근성', '안내시설', '안내책자', '행사요원의 친절'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사전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모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여전히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축제의 경제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상품 및 음식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상품과 음식의 다양성, 품질, 가격 등 모든 부문에서 대단히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6>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만족도 비교

년도 / 항목	2000	2001	2002	2003	추 세
접근용이	4.06	5.17	5.52	5.51	안정적 개선
사전홍보	-	4.34	4.54	4.62	지속적 향상
안내시설	4.74	4.87	4.77	4.72	보합
안내책자			4.96	4.88	보합
요원친절	-	-	4.92	4.91	보합
행사재미	-	4.76	4.89	5.04	지속적 향상
행사다양	-	-	4.84	5.00	지속적 향상
체험프로	4.64	4.65	4.74	4.85	지속적 향상
문화이해	-	-	4.76	4.93	크게 향상
상품다양	3.87	4.33	4.23	4.37	약간 개선
상품품질			4.36	4.43	약간 개선
상품가격			4.16	4.24	보합
음식다양	3.86	4.19	4.28	4.38	지속적 개선
음식가격			4.06	4.16	보합
연계관광	3.93	4.69	4.77	4.78	보합
주차편리	4.34	4.36	4.39	4.23	보합
휴식공간			4.36	4.45	약간 개선
화 장 실			4.45	4.59	지속적 개선

4) 축제별 만족도 비교

일부 축제의 주최측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는 일부 평가기관의 경우 임의로 공통평가항목을 변형시킨 까닭에 본 분석자료만으로 전체 축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축제별 만족도 비교분석 자료는 축제간의 우열을 가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2-7> 2003년 축제별 만족도 비교

축 제 명	평 균	접근 용이	사전 홍보	안내 시설	안내 책자	요원 친절	행사 재미	행사 다양	체험 프로	문화 이해
강진청자	5.19	6.01	4.81	5.50	5.47	5.54	5.32	5.43	5.41	5.57
강경젓갈	4.69	5.39	4.82	4.72	4.75	4.94	4.88	4.86	4.74	5.10
경주술떡	4.25	4.80	4.35	4.09	4.38	4.47	4.40	4.27	4.21	4.21
광주김치	4.67	5.68	4.59	4.55	4.74	4.62	4.89	4.80	4.35	4.64
금산인삼	5.06	5.75	4.81	5.20	5.37	5.59	5.16	5.19	4.99	5.43
김제지평선	4.97	5.60	4.79	5.07	4.99	5.00	5.59	5.65	5.55	5.52
대구약령시	4.24	5.34	4.48	4.46	4.54	4.43	4.56	4.51	4.34	4.56
대전사이언스	4.56	5.88	4.39	4.76	4.87	4.99	4.79	4.99	4.52	3.92
무주반딧불	4.84	5.91	4.94	4.70	5.13	5.03	5.19	5.25	5.14	5.17
보령머드	4.76	6.12	4.46	4.97	4.95	5.07	5.30	5.00	5.27	4.99
부산자갈치	5.16	6.10	5.48	5.01	5.62	5.72	5.72	5.67	6.00	5.74
안동탈춤	5.72	6.42	5.67	6.05	6.05	5.82	6.06	6.22	5.78	6.07
양양송이	4.88	5.13	5.19	4.84	5.06	5.15	5.09	4.93	5.00	4.92
영동난계	4.56	6.02	4.37	4.45	4.88	4.74	5.19	4.91	4.83	5.10
영암왕인	4.04	4.72	4.04	4.30	4.27	4.27	4.38	4.34	3.78	4.38
온양문화제	4.08	5.10	4.50	4.20	4.50	4.30	4.70	4.70	4.50	4.50
이천햅쌀	4.51	5.18	4.33	4.44	4.65	4.96	5.11	4.88	4.97	4.78
진도영등	4.29	4.64	4.54	4.42	4.60	4.41	4.52	4.53	4.42	4.54
진주유등	4.55	5.86	4.41	4.42	4.52	4.51	5.39	5.39	4.49	5.14
춘천마임	4.73	5.47	4.99	4.69	4.97	5.29	5.72	5.66	5.04	4.58
팔만대장경	4.23	5.14	3.39	4.18	3.95	4.44	4.39	4.15	4.32	4.47
풍기인삼	4.68	5.52	4.74	4.91	4.88	4.91	4.76	4.65	4.65	4.82
하동야생차	4.91	5.74	4.25	4.92	5.39	5.13	5.02	4.92	4.91	5.38
한산모시	5.11	5.93	4.59	5.02	5.46	5.44	5.53	5.36	5.44	5.55
함평나비	4.12	4.39	4.54	4.01	4.09	4.00	4.34	4.75	4.48	4.15
평 균	4.67	5.51	4.62	4.72	4.88	4.91	5.04	5.00	4.85	4.93

<표 계속>

축 제 명	상품 다양	상품 품질	상품 가격	음식 다양	음식 가격	연계 관광	주차 편리	휴식 공간	화장실
강진청자	4.94	4.98	4.65	4.72	4.62	5.41	4.80	4.98	5.34
강경젓갈	4.30	4.45	4.23	4.59	4.48	4.32	4.97	3.96	4.94
경주술떡	3.84	4.00	3.99	4.47	4.15	4.94	4.01	3.86	3.98
광주김치	5.04	5.04	4.55	4.74	4.23	4.41	4.13	4.57	4.40
금산인삼	5.00	5.17	4.86	5.09	4.85	4.66	4.19	4.49	5.24
김제지평선	4.49	4.57	4.63	4.67	4.87	4.67	4.00	4.92	4.87
대구약령시	3.85	3.98	3.86	3.83	3.91	4.15	2.81	4.28	4.48
대전사이언스	4.16	3.99	3.73	3.58	3.61	4.00	5.45	5.35	5.03
무주반딧불	4.60	4.65	4.37	4.35	4.13	5.09	3.93	4.56	5.03
보령머드	4.46	4.49	4.45	4.33	3.98	4.45	4.35	4.60	4.47
부산자갈치	5.15	5.05	5.30	5.58	5.39	5.56	3.28	3.14	3.33
안동탈춤	5.81	5.32	4.93	5.10	4.35	6.03	5.78	5.60	5.94
양양송이	4.69	4.64	4.57	4.61	4.63	5.71	4.63	4.71	4.38
영동난계	4.21	4.38	4.13	4.48	4.22	4.39	3.77	4.02	3.94
영암왕인	3.59	3.50	3.37	3.77	3.27	4.16	4.12	4.28	4.17
온양문화제	3.30	3.40	3.20	3.80	3.10	4.40	3.00	3.70	4.50
이천햅쌀	3.94	4.43	4.17	4.02	3.95	4.61	4.99	3.81	3.91
진도영등	3.68	3.74	3.63	3.99	3.58	4.66	4.61	4.42	4.34
진주유등	4.26	4.07	4.00	4.30	3.96	4.92	3.12	4.49	4.67
춘천마임	4.13	4.38	4.25	4.09	3.91	4.98	3.77	4.88	4.36
팔만대장경	4.10	3.96	3.75	4.00	3.98	4.68	4.61	4.40	4.24
풍기인삼	4.19	4.50	4.29	4.56	4.43	4.89	4.77	4.16	4.62
하동야생차	4.75	4.91	4.54	4.26	4.41	5.64	4.30	4.75	5.20
한산모시	4.72	5.09	4.56	4.33	4.36	4.96	4.85	5.36	5.35
함평나비	4.07	4.04	4.03	4.19	3.69	3.76	3.57	3.99	4.12
평 균	4.37	4.43	4.24	4.38	4.16	4.78	4.23	4.45	4.59

(4) 방문객 소비지출

1) 지출항목별 소비지출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다. 전체 항목 중에서 쇼핑비의 비중이 25.3%로써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음료(24.9%)와 교통비(23.2%)가 뒤를 이었다. 여기서 쇼핑과 식음료부분의 소비지출 즉, 전체 금액의 50% 이상이 대부분 축제현장에서 발생하므로 축제주최측에서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대에 초점을 맞춘 기획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8> 2003년 문화관광축제 지출항목별 소비지출

구 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금액 (원)	11,966	7,131	12,851	4,414	13,038	2,133	51,532
구성비 (%)	(23.2)	(13.8)	(24.9)	(8.6)	(25.3)	(4.1)	(100.0)

2)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축제소재에 따라 산업형 축제와 비산업형 축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비산업형 축제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이 산업형 축제의 80.3%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2년도의 77.3%에 비하면 축제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비산업형 축제의 수익성 개선보다는 산업형 축제의 수익성 저하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비산업형 축제는 쇼핑비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산업형 축제는 다양한 즐길거리

개발을 통한 유흥비 등의 소득증대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평가를 시작한 예비축제를 정규축제와 비교한 결과, 전체 소비지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연륜이 깊은 정규축제가 쇼핑비와 식음료 부문의 매출이 높았으며, 예비축제는 유흥비와 숙박비 등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예비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그로 인해 쇼핑비와 식음료 매출을 증대시키는 개발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9> 2003년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항목 / 유형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산업형 축제	10,842	7,556	13,684	3,712	20,083	1,285	57,164
비산업형 축제	13,089	6,706	12,017	5,115	5,992	2,980	45,899
(비산업형/산업형)	120.7%	88.8%	87.8%	137.8%	29.8%	231.9%	80.3%
정규축제	12,303	6,720	13,132	3,978	13,641	1,534	51,308
예비축제	10,110	9,391	11,305	6,808	9,717	5,428	52,759
(예비/정규)	82.2%	139.7%	86.1%	171.1%	71.2%	353.8%	102.8%

3) 연도별 소비지출

2003년도 소비지출 분석자료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방문객 소비지출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약보합상태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교통비만 다소 높았을 뿐, 나머지 항목은 모두 평균값을 밑돌았다. 특히 문화관광축제의 주요 소득원인 식음료비와 쇼핑비의 저조한 실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만족도 분석 부분에서도 보았듯이 축제 방문객들의 지역 특산물이나 기념품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결과적으로 식음료 및 쇼핑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의 감소로 진행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축제주최측에서는 향후 축제상품 및 식음료 매출증대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표 2-10>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소비지출

년 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00년	11,173	8,327	15,567	6,516	22,901	324	64,808
2001년	8,459	5,904	13,055	4,818	12,782	4,485	49,502
2002년	11,587	8,093	13,454	4,411	10,917	3,045	51,507
2003년	11,966	7,131	12,851	4,414	13,038	2,133	51,532
4년 평균	10,796	7,364	13,732	5,040	14,910	2,497	54,337

4) 개최시기별 소비지출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를 그 개최시기에 따라 상반기축제(10개)와 하반기축제(16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상반기축제의 소비지출이 하반기축제의 79%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쇼핑비에서 그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반기 축제가 추수철에 개최하는 하반기 축제에 비하여 농산물 중심의 상품구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축제 주최측에서는 계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농산물을 제외한 특산품 또는 기념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축제는 식음료비와 숙박비, 유흥비 등에서도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공통적 원인은 상반기 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행사장 및 해당 지역에서의 체류시간이 짧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상반기축제 주최측에서는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프로그램(특히 야간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상반기축제와 하반기축제의 '음식·상품 부문'에 대한 5개 항목의 만족도 평균값을 별도로 분석해본 결과, 상반기 축제의 음식과 상품 만족도는 3.99로써 하반기 축제의 4.54보다 크게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반기축제는 음식 및 상품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표 2-11> 2003년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기별 소비지출

항목 / 개최시기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상반기	11,637	6,243	11,123	3,425	8,720	3,323	44,471
하반기	12,171	7,686	13,931	5,032	15,736	1,389	55,945
상반기 / 하반기	96%	81%	80%	68%	55%	239%	79%

5) 축제별 소비지출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51,532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5원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소비지출이 발생한 축제는 온양문화제(103,615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양양송이축제(93,087원)와 보령머드축제(89,453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가장 소비지출이 적게 발생한 축제는 영암왕인문화축제(16,978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3,460원)와 합천해인사팔만대장경축제(23,773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평가기관별로 측정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값으로 신봉하기보다는 상대적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2-12> 2003년 축제별 소비지출

축 제 명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강경젓갈	9,701	8,400	14,320	6,970	13,645	1,150	54,186
강진청자	22,299	3,614	12,739	1,240	20,365	2,767	63,024
경주술떡	5,156	4,819	10,963	1,675	7,464	3,971	34,048
광주김치	6,669	3,708	11,321	1,496	6,139	-	29,333
금산인삼	15,900	1,302	14,267	1,477	42,297	1,388	76,631
김제지평선	15,404	1,765	13,763	1,393	5,088	378	37,791
대구약령시	5,584	6,188	11,624	3,804	21,030	-	48,230
대전사이언스	16,100	5,531	13,200	12,086	6,000	-	52,917
무주반딧불	22,572	17,526	20,457	5,558	7,950	2,770	76,833
보령머드	22,207	22,936	25,967	13,377	4,966	-	89,453
부산자갈치	2,990	19,060	19,950	6,700	24,430	240	73,370
안동탈춤	4,818	1,082	7,180	2,522	4,713	3,145	23,460
양양송이	6,325	14,526	15,704	2,619	52,572	1,341	93,087
영동난계	9,818	912	14,136	9,088	13,912	-	47,866
영암왕인	8,771	1,538	4,155	664	1,107	743	16,978
온양문화제	13,171	27,027	17,611	18,431	11,750	15,625	103,615
이천햅쌀	7,363	2,410	7,982	3,744	18,477	3,147	43,123
진도영등	20,245	7,732	12,107	1,402	4,673	315	46,474
진주유등	12,195	3,404	12,898	4,115	5,839	2,074	40,525
춘천마임	7,199	3,015	7,121	2,001	2,718	7,951	30,005
충주무술	11,515	12,659	9,267	5,915	5,587	2,125	47,068
팔만대장경	7,712	4,722	6,729	943	2,803	864	23,773
풍기인삼	8,859	4,142	9,743	2,208	19,796	1,699	46,447
하동야생차	17,330	4,500	12,210	930	19,100	410	54,480
한산모시	10,568	2,627	11,107	2,018	10,801	593	37,714
함평나비	20,638	259	17,599	2,383	5,753	2,756	49,388
평 균	11,966	7,131	12,851	4,414	13,038	2,133	51,532

문화관광축제는 해마다 평가를 통하여 예비축제가 정식축제가 되기도 하며

정식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3>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상반기)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비고
인제 빙어축제	1.29~2. 1	○전통썰매타기(외발,탄통), 팽이치기, 연날리기, 널뛰기, 빙어낚시, 스키마차타기, 빙산볼링, 스노우모빌, 이글루체험, 빙어마당극 등	예비
경주 한국의술과 떡잔치	3.27~4. 1	○술·떡전시, 제조과정시연, 떡메치기시연, 디딜방아 찧기, 전통혼례 및 관례재연, 달집태우기 등	우수
팔만대장경축제 (합천군)	4.23~4.27	○바라춤, 승무, 합천오광대공연, 팔만대장경 이운 경로 재연, 대장경 인경, 산사문화체험, 산사음악회 등	예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시)온양 문화제	4.25~4.29	○거북선해전놀이, 난중일기 마당극, 무과전시재연, 한중일 군장체험, 전통대장간 체험, 헌정수 봉치식	육성
한산 모시문화제 (서천군)	5. 1~5. 6	○한산모시제, 모시길쌈체험, 모시옷 입어보기, 천연 염색체험, 모시옷패션쇼, 한산모시디자인공모전 등	우수
함평 나비축제	5. 1~5. 9	○남도노동요, 호남가 경창대회, 기산제 재연, 나비 생태관 운영, 나비사랑 체험마당, 친환경농업체험장 등	육성
보성 다향제	5. 1~5.10	○다산제, 철쭉제례, 향토농악, 보성소리공연, 차잎 따기, 차 만들기, 차사랑 연등달기, 녹차팩 건강 미용체험, 다향의 밤, 차인의 밤 등	예비
전국민속투우축제 (정읍시)	5. 2~5. 6	○정읍사 국악단 공연, 소싸움·돼지싸움, 가축품평회, 승용마 시승식, 축산기자재 전시 등	예비
연천 구석기축제	5. 3~5. 5	○석기교실, 움집교실, 수렵·채집·벽화그리기, 불피우기, 주먹도끼만들기, 가족나무심기, 놀이기구, 선사체험장, 불의의식, 야간병영체험 등	예비
서울 약령시축제	5. 4~5. 8	○한약초사진전시회, 약재썰기대회, 건강박람회, 한방체험한마당, 우수한약재전시회 등	예비
춘향제 (남원시)	5. 4~5. 8	○춘향제향, 국악대전, 전국시조경창대회, 춘향 그네뛰기, 창극 춘향전, 남원도예전, 국악대향연 등	육성
지리산한방·약초 축제(산청군)	5. 4~5. 8	○약초그리기·백일장, 약재 썰기, 한약달이기, 약초 동산 운영 등	예비
진도 영등축제	5. 5~5. 7	○영등살놀이(뗏목놀이,용왕제,바닷길영합회,뽕할머니 씻김),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개메기체험 등	육성
대구 약령시축제	5. 8~5.12	○고유제, 제례악, 날뫼북춤, 비산농악, 한방요리전시, 약초꽃 사진전, 약썰기, 한약재 달이기 시연 등	우수
하동 야생차축제	5.22~5.25	○대렴공 각색 마당극, 어린이 차 예절 경연대회, 차잎따기, 산사문화체험, 범패공연, 차만들기 등	우수
춘천 국제마임축제	5.26~5.30	○공식초청작품 공연, 가족을 위한 마임공연, 거리·방문공연, 마임캠프, 도깨비난장 등	우수
울산 고래축제	5.27~5.30	○고래잡이재현, 고래역사기행, 고래탐사, 고래당기기 대회, 바다그림그리기, 고래학술심포지움, 포경 전시회, 고래음악회	예비

<표 2-14>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하반기)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비 고
보령 머드축제	7.16~7.22	○머드슬라이딩, 머드탕, 머드풍선, 머드왕선발대회, 셀프머드마사지체험, 머드교도소 등	우수
강진 청자문화제	7.31~8. 6	○청자파편모자이크만들기, 청자함께만들기, 청자학술세미나 등	최우수
무주 반딧불축제	8.20~8.28	○반딧불이 신비탐험,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운영, 여치집만들기 등	우수
효석 문화제 (평창군)	9월초	○메밀꽃그리기, 전통민속놀이, 유리공예, 메밀국수, 메밀음식시식회, 달맞이행사, 문학의 밤, 영화상영 등	예비
금산 인삼축제	9.10~9.19	○전통민속놀이, 인삼캐기체험, 인삼농가민박, 약초썰기체험, 인삼약초만들어먹기 등	최우수
서귀포 칠십리축제	9.15~ 9.19	○제주목사순력행사재현, 바다낚시대회, 해녀태왁수영대회, 물허벅지기, 핀수영대회 등	예비
붕화 송이축제	9.23~ 9.26	○전통혼례, 오광대놀이, 송이전시, 야생버섯전시, 송이채취, 메뚜기잡기, 민속놀이, 연등타기, 자연생태체험 등	예비
강화 고인돌축제	10. 1~10. 3	○토기제작, 원시 불 피우기, 돌탑 쌓기, 고인돌 축조재현, 팔만대장경 판각재현, 강화도령선발, 철종 등극행렬 등	예비
양양 송이축제	10. 1~10. 5	○송이채취현장체험, 송이농가 홈스테이, 전통혼례, 민속공연 등	육성
충주 세계무술축제	10. 1~10. 7	○국내외 무술시연, 택견무공연, 무술체험, 전통군장체험 등	우수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10. 1~10.10	○탈춤공연, 도산별시, 차전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탈그리기, 탈만들기, 탈춤배우기 등	최우수
진주 남강유등 축제	10. 1~10.12	○세계의 등 전시, 소망등 달기, 창작등 만들기, 수상불꽃놀이, 진주성 전투 수상영상재현 등	육성
난계국악축제 (영동군)	10. 2~10. 5	○전국 국악경연대회, 국악기체험, 난계 숭모제, 외국인 국악공연대회, 난계국악단공연 등	육성
풍기 인삼축제 (영주시)	10. 6~10.10	○인삼요리경연, 인삼씨앗뿌리기, 인삼캐기체험, 인삼인형극 전통농악 등	육성
김제 지평선축제	10. 7~10.10	○벽골제사, 쌍용놀이, 만경들노래시연, 세계 농촌민속체험, 농촌에서의 하루 등	우수
부산 자갈치축제	10.13~10.17	○외국인요리경연대회, 맨손으로 활어잡기, 생선회 정량달기, 수산물깜짝경매 등	육성
강경 젓갈 축제 (논산시)	10.14~10.18	○젓갈김치담그기, 젓갈주먹밥, 강경포구뱃길여행, 용왕제 재현, 풍물놀이 등	육성
광주 김치대축제	10.19~10.24	○김치담그기 체험코너, 자연체험학습장, 민속놀이마당 등	육성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남 순천)	10.19~10.24	○선릉제, 남도 들노래, 북춤, 마당극, 풍물놀이, 다도 시연, 부침개·부꾸미·과채즙 경연, 남도음식전시, 국악공연 등	예비
이천 햅쌀축제	10월 하순	○풍년 대동줄 만들기, 짚·풀 공예품만들기, 벼 탈곡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	예비

(5)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

1) 축제전략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의 거점도시로 변화시킨 춘천인형극제

춘천 인형극제는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현대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89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춘천인형극제'라는 인형극 행사를 개최해 온 춘천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행사규모의 확장과 함께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문화자원이 빈약한 지방도시 춘천에서 1989년 바른손(주)이라는 기업이 춘천어린이 회관을 위탁 경영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1회 축제 행사에 참가한 극단이 국내 13개, 해외 1개 단체이던 것이 7회 축제에는 총48개 극단으로, 또 2000년 12회에는 총 73개 극단(국내 67, 해외 6개국 6개 단체)으로 확대되었고, 공연 장소도 어린이 회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2000년에는 춘천어린이회관, 문화예술회관, 적십자회관, 문화예술체육회관, 대한지적공사, 숲속무대, 후평동 발레스쿨, 버스극장, 공지천 야외무대, 명동거리, 명동지하상가 이벤트홀 등으로 확대되었다.

춘천을 문화예술활동의 거점도시로 변화시킨 춘천인형극제의 성공요인으로는 장소적 특성을 살린 축제요소 발굴과 매스컴을 활용한 인형극축제의 관심증가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겠다는 주최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짜임새 있는 운영을 들 수 있다.

2) 원거리 방문객을 유인하는 전국적인 관광축제 진도 영등제

진도의 영등 축제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진도 신

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때에 맞추어 성대히 개최되는 문화관광 축제 이벤트이다. 전남 진도군 고도면 회동리와 신의면 모도 마을 사이 2.8km의 바다가 매년 음력 3월 초에 해수간만의 차이로 해저의 사구가 40m폭으로 물위로 드러나 바닷길을 이루는 데 이것을 영등살이라 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강강술래, 남도들 노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진도민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열린다.

진도 영등 추진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는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관광축제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진도군의 문화재 공연이 중심이었으며 1일 행사로 치러졌으나, 현재는 3일 행사로 연장되어 치러지며 제19회 진도영등제의 방문객조사를 통해 방문객 구성비에 있어 전국적인 관광축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영등제 방문객들을 광의의 지역별로 보는 권역별 분석에서 전남, 전북을 합친 전라권이 전체 59%를 차지했고, 서울, 경기의 수도권이 20%를 차지했으며, 경남, 경북을 합친 경상권은 14%를 이루었다.

참가한 방문객들의 방문 동기를 살펴보면 ① 바다가 갈라지는 장엄한 광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②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③ 신명나는 공연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④ 조개를 줍거나 풍물시장 구경하는 것을 좋아해서 ⑤ 단지 따분한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느끼고 싶어서 ⑥ 종교적 또는 복을 기원하고 싶은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동기는 지역주민들의 축제를 통한 마을의 협동심 고취 노력과 문화를 관광자원화시키려는 진도군 당국의 적극적인 의도가 부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원거리 방문객을 유인한 전국적인 축제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3) 지역이미지 홍보에 성공한 광주비엔날레

1995년 한국의 지방화 원년에 개최된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기존 항쟁의

도시이미지를 예향의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예술문화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광주비엔날레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투입하여 적자를 보지 않고 문화행사를 치를 만큼 국내 문화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단일문화행사로 최대인 1백 64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재정면에서도 20억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지방화시대에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은 지역축제가 내부적 문화보존과 지역주민의 결집력 도모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이 부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4) 축제전략을 통한 지역의 특화산업 진흥에 성공한 이천도자기 축제

1995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동안 개최된 제9회 이천 도자기 축제는 경기도 이천군과 이천문화원이 주최하던 것을 문화체육부 국제 관광과와 한국관광공사 행사처가 가세하여 기존의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방의 관광개발형 지역축제로 성공리에 치러졌고 높은 경제파급 효과를 창출하였다.

'흙과 불의 잔치'를 주제로 개최된 이 축제는 2만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 총 25만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이 몰려들어 200개가 넘는 전통 도자기 가마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예촌인 이천의 지역특화산업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축제 기간동안 54개 요장이 참가하는 도자기 시장에는 50% 할인가격으로 도자기를 판매하면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높은 경제효과를 거두었는데, 공식적인 통계로는 총 6억원 규모의 판매고를 기록하여 1994년 8회 축제의 5천7백만원의 판매실적에 비해 10배의 급성장을 보인 것인데, 집계되지 않은 행사장 안팎의 비공식 판매까지 합친다면 총 12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3. 제주지역 축제

제주도는 4계절이 뚜렷하고, 섬문화라는 특이성이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축제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도 치러지고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5> 제주도 지역축제 현황(제주시)

주최	축제명	개최시기	장 소	행사내용
제주시	탐라국 입춘굿 놀이	2월3일~4일	제주시 일원	거리굿, 입춘굿, 축하공연, 세경놀이, 입춘굿놀이
	용연야밤 재현축제	5월 중순	제주시 용연포구	줄타기공연, 국악공연(민요, 국악기), 클래식 공연(성악, 기악)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7월~9월	이호・삼양해수욕장, 어승생 앞	비치패션쇼, 연예인축하공연, 캠프파이어 등
	한여름의 해변축제	7월20일~8월9일	제주해변공연장	기악, 합창, 성악, 무용, 연극, 국악공연 등 연일 공연
	제주 국제관악제	8월12일~8월20일	제주해변공연장 제주도 일원	순회연주회, 관악국제콩쿨, 유명관악인공개강좌, 관광영화제 등

탐라국입춘굿 놀이의 유래는 고대 탐라왕 시대의 친경적전의 유습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목사가 전도 심방을 모아 비용을 대고 제주가 되어 벌이는 굿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는 고대의 국행사전이였던 나래흥으로 탈놀이인 입춘굿놀이가말미를 장식하는 완성형 입춘굿놀이가 되었다. 이러한 제반의 과정이 2002년(탐라국 입춘굿놀이)의 원리적 복원과 창조적 계승작업이다. 이 굿놀이는 지금부터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행해졌었는데 이 굿놀이를 할 때면 심방들이 백여 명이 모여서 했다고 한다. 이 굿놀이는 말이 없이 이뤄지는 일

종의 묵극(默劇) 형태인데 그 과정을 기술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올해는 2002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시 일원(제주시청, 관덕정 광장)에서 시가지 걸궁, 낭쇠고사, 어울림한마당, 거리굿, 입춘굿, 축하공연, 세경놀이, 전상놀이, 입춘탈굿놀이 등이 개최되었다.

용연야밤재현축제는 음력 4월 보름에 매해 개최되고 있는데 달빛을 배경으로 물위의 음악을 감상하며 뱃놀이 흥취를 즐길 수가 있다. 올해에는 제주의 전통배 '덕판배'와 '테우'를 띄워 놓고 300년 전 용연에서 있었던 선현들의 밤뱃놀이의 정취를 되살리는 음악회가 열릴 것이다. 조선조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에 부임한 이형상이 당시 제주의 풍속도를 담아 제작한 옛 지도 ≪탐라순력도≫에도 '병담범주(屛潭泛舟)'라 하여 용연에서 야외뱃놀이가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용연야범(龍淵夜泛)'으로 더 알려져 있는 용연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름다리'가 놓여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곳이다. 제주시는 이곳을 문화재지구로 신청할 계획도 잡고 있다.

요즘 용연에는 계곡 양쪽으로 축축 늘어진 아름드리나무가 진한 녹음을 드리워 상큼한 공기를 내뿜고 있다. 그 밑으로는 녹음을 받은 갈매빛 물빛이 선경(仙境) 그 자체다. 축제기간동안 용연 곳곳에는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어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코끝을 자극하며, 계곡의 수려한 경관 위로 보름달이라도 떠오르면 용연의 정취는 극치를 이루는데 '용연선상음악회'는 달빛과 물빛이 어우러진 용연의 천혜 자연환경을 무대로 활용해 옛 풍류객들이 달밤에 배를 띄워 흥취를 돋웠던 밤뱃놀이의 정감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행사다.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제주시를 중심으로 매해 7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레저와 스포츠행사이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제주이지만, 여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다.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축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는 다른 예술축제와는 달리 바다 내음을 맡으며 관람이 자연스러운 탑동공연장에서 장기간 동안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악, 합창, 무용, 연극,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무대를 장식하는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 이제 전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제주만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표 2-16> 제주도 지역축제 현황(서귀포시)

주최	축제명	개최시기	장 소	행사내용
서귀포시	서귀포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1월 4일	중문해수욕장	치어리더 공연, 겨울바다펭귄수여대회
	서귀포칠십리 국제걷기대회	3월 27일~28일	서귀포시 일원	10km, 20km, 30km 구간별 걷기대회
	칠선녀축제	5월 초순	서귀포시 천제연폭포 일원	칠선녀전설재현, 칠선녀선발대회, 외국인공연무대, 연예인축하공연
	보목수산일품자리돔 큰잔치	6월20일~22일	서귀포시 보목포구	수중생태탐방, 자리돔 어획장면 시연, 맛자랑경연대회, 어업현장탐방
	한여름밤의 서귀포해변축제	8월 1일	중문해수욕장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
	법환수산일품 한치큰잔치	8월22일~24일	서귀포시 법환포구	한치낚시대회, 수중생태탐방, 한치요리경연대회, 한치가요제
	이중섭예술제	9월24일~28일	서귀포시 일원	깃발미술제(설치미술), 행위 및 전위 예술공연, 거리퍼포먼스
	서귀포칠십리축제	9월 중	천지연광장, 서귀포시 일원	제주목사 서귀진성순력행차, 어선낚시체험, 퍼레이드 등
	울트라마라톤축제	9월 27일	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 일원	60km, 100km 마라톤

서귀포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는 일종의 극기체험이자 일상과 상식의 틀을 벗어나려는 색다른 겨울체험관광이벤트이다. 펭귄수영대회는 새해 첫 행사로

신년벽두인 1월에 치러진다.

서귀포칠십리 국제걷기대회는 해마다 3월 넷째주 토, 일요일에 서귀포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마련된다.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광 속을 걸으면서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에는 제20회 유채꽃 큰잔치와 제4회 서귀포칠십리 국제걷기대회가 동시에 열린 중문관광단지 행사장에는 일본인 관광객 500여명을 포함해, 도민과 관광객 등 1만여 명이 몰려 노래자랑, 제주전통혼례식, 월드컵 응원 콘테스트 등의 행사를 즐겼다.

서귀포칠선녀축제는 별빛 영롱한 밤이면 천상의 선녀들이 옥피리를 불며 내려와 천제연의 맑은 물에 미역을 감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소재로 치러지는 문화관광축제이다. 천혜의 자연절경과 수려한 풍광을 끼고 신비스러운 전설과 새봄의 향연이 어우러져 개최되는 이 축제는 해마다 5월(격년제)에 칠선녀제,칠선무공연,장기대회,사투리경연대회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성산일출제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는 “새천년 빛, 평화의 소리”라는 주재로 매해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펼쳐졌다. 제주의 동쪽 끝에 있는 성산포 해안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보는 일출을 주제로, 일출시간에 해맞이와 공연 그리고 참가자들의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의 시간 등 행사가 이루어졌다.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는 새해 첫 대보름날을 맞아 드넓은 목야지에 큰불을 놓아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 속에 무한한 행복과 복을 염원하는 북제주군의 향토민속 축제이다. 일찍이 목축업이 성행했던 제주에는 주민들의 생업수단으로 목야지에 불을 놓는 화입(방애)이란 풍속이 있었다. 이처럼 목축의 번성을 의해 행해졌던 풍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관광이벤트화한 것이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이다′이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하

이라이트는 단연 드넓은 목야지에 불을 놓아 불바다의 대장관을 연출하는 것이다.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부싯돌 불씨만들기, 달집 태우기, 불깡통 돌리기를 비롯하여 전통혼례와 풍물놀이, 전통민요한마당, 집줄놓기, 영감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연날리기, 줄다리기, 풍년기원제와 제주조랑말 투마대회, 돼지·오리몰이 경주, 꿩날리기,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사진콘테스트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 밖에도 향토음식점과 특산물 판매코너를 비롯해 구워먹기 마당도 함께 마련된다.

제주억새꽃축제는 가을 한라산을 대표하는 억새꽃을 주제로 행해지는 축제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 가을 들녘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제주 억새꽃 잔치가 열린 것은 제주 특유의 잔치로서 뜻이 크며 특히 신혼관광객들에게 추억 만들기 장소로 인기가 높다. 올해에는 2004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오라관광지구내 섬문화축제장에서 개최된다.

탐라문화제는 제주도 민속 행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도민의 참여가 큰 축제이며, 매년 10월초 밀감이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할 무렵 열린다. 전국의 지역축제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행사로 평가된다. 한라문화제는 고양부삼신인의 탐라 개벽 이래로 창조의 지혜와 개척 정신으로 척박한 땅을 일구고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이어온 제주고유민속 예술을 발굴, 육성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매년 거대하게 열리고 있다. 하지만, 도민과 관광객의 유인력이 부족하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철쭉제는 하얀 겨울의 잔상 위에 분홍빛이 한라산 천백고지 일대를 물들이는 장관이 펼쳐지는 5월경에 개최되고 있다. 철쭉이 절정으로 피어나는 5월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지역을 선정하여 산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철쭉제를 지내는데 철쭉제에 참가한 여행자들 중에서 철쭉꽃 여왕을 뽑기도 한다.

<표 2-17> 제주도 지역축제 현황(남/북제주군, 각 기관)

주최	축제명	개최시기	장 소	행사내용
북제주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1월30일 ~31일	북제주군 새별오름	태고의 불씨 만들기, 개막선언, 전통혼례, 풍물놀이, 말사랑싸움놀이, 전통마상
남제주군	성산일출제	12월30일~1월1일	성산읍 성산일출봉	화합의 잔치, 풍물놀이, 축하공연, 분화구콘서트
	제주유채꽃 잔치	4월13일 ~15일	정석항공관 일원	KBS전국노래자랑, 축하쇼, 제주민속한마당, 제주전통혼례, 어린이 사생대회, 향토 풍물장터운영 등(순회개최)
	고사리꺽기 대회	4월25일	남제주군 일원	고사리꺾기대회, 고사리백일장, 레크리에이션
	표선백사축제	8월2일 ~3일	표선해수욕장	비치패션쇼, 연예인축하공연, 캠프파이어
	최남단모슬포 방어축제	11월9일 ~11일	대정읍 모슬포항	선상방어낚시대회, 음식솜씨자랑, 풍어제, 바다수영대회, 송악가요제
제주도	세계일보서귀포국제마라톤 대회	2월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 일원	5km, 10km, 21km, 42km 마라톤 경주, 사물놀이, 축하공연
	제주억새꽃 축제	10월4일 ~9일	오라관광지구	개막축하쇼, 억새꽃노래자랑, 걷기대회, 베스트커플, 베스트제주
	탐라문화제	10월5일 ~12일	제주도 일원	한라산신제, 길놀이, 민속예술축제, 학생민속예술축제
제주산악회	철쭉제	5월 넷째주 일요일	한라산 윗세오름	철쭉제례, 다함께 자연보호

자료 : http://www.infojeju.com/data/festival/festival_10.htm 일부수정

1997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 속에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축제」는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서부산업도로변에 위치한 수십 만평의 드넓은 목야지(오름)에 불을 놓는 민속관광 축제로 제주의 겨울철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축제이다. 주요 행사로는 봉화대점화, 전통혼례, 오름 오르기, 말사랑 싸움놀이 등이 있다.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유채꽃 잔치」는 제주도 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을 연출했으며, 유관기관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도민적인 행사로 유도되었다.

「칠선녀축제」는 천제연폭포 전설에 의하여 칠선녀들의 아름다운 설화를 재조명함으로써 독특한 향토문화 창출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관광객 증진 및 국제적인 관광이벤트 행사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를 조성하였다. 이 축제의 추진방향은 풍요로운 축제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 문화의 향토적 특성들을 조화롭게 드러내도록 향토성 있는 축제로 연출, 축제별로 특성이 돋보이게 하여 전체 축제를 주민화합으로 진행 연출, 자율적 참여와 화합으로 범도민 공동체의식 형성 계기 마련, 검소하면서도 효과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다.

마라톤축제는 월드컵 개최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서귀포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축제는 동북아 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마라톤 축제의 장을 패키지 관광상품화하며, 국내외 잠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월드컵 개최와 함께 아름다운 제주를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었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도민보다 외래 방문객, 특히 외국인 참가자 유치에 주

력했으며, 재외 제주도민협회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백만 제주인 대단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 축제는 참가선수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통통제 및 기록 계측장비 및 경기운영의 완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제주는 바다, 오름, 푸른 창공 등 모든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동호인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각 동호인, 단체별로 소규모적이며, 부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홍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1999년 하반기에 관련 단체장, 학계, 여행업계 등으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 그 동안 소규모로 분산 개최되고 있는 행사를 통합, 대규모화해서 관광객들이 패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여름철 휴가기간에 개최하여 레저・스포츠 동호인과 가족 등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게 함으로써 제주관광 욕구 창출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침체되고 있는 제주관광 진흥의 돌파구를 마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제9회 제주국제관악제[앙상블축제 및 제2회 국제관악콩쿠르]」는 2004년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주도일원(해변공연장,문예회관,한라수목원,한라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그 중에서도 해변에서 세계최고 관악인들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축제이다. 특별이벤트로는 시가퍼레이드, 제주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고, 주요행사로는 순회연주회, 공개강좌, 제4회 국제관악콩쿠르가 있다.

제4절 선행 연구 동향

1. 국외의 선행연구 분석

(1) 윅스(Wics)와 훼선메어(Fesenmaier)의 연구

윅스(Wics)와 훼선메어(Fesenmaier)는 1990년 미국 서부의 소도시 샤토쿠아(Chautauqua)에서 열린 49회 예술축제에서 “갭 1 모형”을 기초로 참가업체와 관광자간에 서비스품질에 대한 성과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조사의 서비스품질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소로서 주차와 화장실시설의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한 외에, 제공자와 방문자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방문자 혼잡성”이었다. 즉 참가업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올려주길 원하고 관광자는 덜 붐벼서 여유롭게 관람하기를 원하였다. 다음으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지각차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구매력이 높은 집단을 선별해서 축제에 방문시킴으로써 두 집단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공예품과 기념품의 우수한 품질과 수준 높은 서비스에 따라 적정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축제의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서비스품질의 구성차원을 16개 속성으로 나누었다. 즉, 설치물의 매력, 전시자의 친절, 공예품과 예술품의 다양성, 전시자의 유익성, 공예품 품질, 이벤트의 짜임새, 예술의 질, 양질의 질, 양질의 음식, 양질의 공연, 정보의 유익성, 공예품의 적정가격, 예술품의 적정가격, 음식물의 적정가격, 적절한 관람자 혼잡도, 화장실의 질, 주차의 용이성이었다.

(2) 크롬프튼(Crompton)의 연구

미국의 텍사스주 3만 인구의 도시 그레이프바인(Grapevine)의 제10회 “Main Street Days” 축제는 3일에 걸쳐 전통적 상가중심에서 펼쳐지며 행사기간 중 약 5만명의 방문자가 이곳을 찾는다. 크롬프튼(Crompton)은 이 축제의 성과의 품질을 측정하는데 직접적인 접근과 불일치접근을 비교함으로써 축제의 서비스품질 측정을 위한 5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불일치측정모형이 직접측정보다는 일반적으로 뛰어남을 알았다.

관리자가 사용할 가장 좋은 선택대안은 ‘지각 마이너스 기대’ 형태와, 응답자에게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과 바람직한 수준의 품질을 평가하게 하는 3개의 난을 이용한 포맷(3-column format)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의 질과 관광자 만족의 구성개념에 대한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여기서 두 구성개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관광자만족은 서비스 품질 외에 날씨, 사회구성원의 성격에도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먼저 설문지를 구성하는 서비스품질차원은 18개 속성을 마련하였다. 첫째, 기본특성으로는 역사성을 갖춘 주변구역의 외관, 행사장 안전, 행사장 청결, 상점의 친절도, 식음료, 실황연회로 했으며 둘째, 주요 연예의 특성으로는 역사성 재현, 공예품・미술품 전시, 어린이 놀이터, 상업전시장 부스, 오프리공연으로 하고, 셋째, 정보자료로서는 공연프로그램 안내도, 시내 안내지도, 관광안내소였으며, 편의시설로서는 간이화장실 청결도, 화장실 접근도, 장애자 접근시설로 구분하였다.

모두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20개 차원의 기대치로 구성된 설문지를 입장 전에 실시하였다. 이는 관광자 규범기대를 리커트 9점 척도로 경험에 의한 성과의 질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차후의 우편발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응답자들의 주소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

째 조사의 3가지 양식의 측정은 반송우편 설문지로 하였다. 제1양식은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상대적인 '메인 스트리트 데이즈'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2양식은 비교측정으로 두 개의 난이 병행하고 있는 형식에서 동 축제의 서비스 질의 수준과 그들의 최소한의 허용가능하고 바람직한 서비스품질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제3양식은 3개의 난이 있는 설문지에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축제에 있어서 그들의 최소한의 허용가능한 서비스, 바람직한 서비스 질의 수준과 동 축제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세 가지 분리된 표본들의 특징 또는 개요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다섯 가지 차원의 척도항목들의 예비과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증적 그리고 실험적 요인분석들이 실시되었으며, 7가지 서비스품질 측정의 상대적인 판별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과의 품질과 연관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다른 구성개념인 두개의 종속변수들에 대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3) 이훈과 커스테터(Kerstetter)의 연구

이훈과 커스테터(Kerstetter)가 한 연구는 1994년 7월 14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미국 센트럴 센실베니아 예술축제(The Central Pennsylvania Festival of Arts)에 참가한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자 1,000명(n=715)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후속 우편조사를 통하여 지역집단의식의 가정 하에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자간의 방문동기, 행사평가, 그리고 만족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근거하여 이러한 차이점 분석을 의거한 관광축제와 이벤트의 기획과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현장조사와 후속 우편조사기법을 통한 삼각측정 접근법을 이

용하고, t-검증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비스 품질과 연관되는 축제평가 항목에서는 5점 척도인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지역주민 참가자는 관광자보다 예술축제에 더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고 관광자는 방문자행동, 옥내전시, 노변음식, 청결, 학습기회 등에서 지역주민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수준 항목은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자들의 만족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관광자들이 지역주민 참가자보다 더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의 평가의 대상이 된 13개 차원은 축제안내정보, 방문자 행동, 자원봉사자, 노변판매, 옥내전시, 예술공연, 주차공간, 셔틀버스 서비스, 행사배치, 노변음식, 청결, 학습기회, 즐거움이었으며 추가로 '전체적인 평가' 차원을 하나 더 두었다.

2. 국내의 선행연구 분석

(1) 이장주, 박석희의 연구

어떠한 요인과 속성에 의하여 지역축제의 이미지가 결정되고 있는가를 1998년 4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거행된 진도영등제에서 참가자 면접설문을 통한 유효표본 405명을 대상으로 실증 검증하였다.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관광지, 주제공원, 리조트를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한편 축제 이미지측정은 관광지관련 속성(편의적, 놀이적, 심리적 요소), 축제관련 속성(지역적, 제의적, 참여적 요소)의 30개 항목으로서 이를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6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나 요인분석결과 7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용성 요인으로는 안내판정비, 행사장 접근용이, 현장정보 풍부, 행사시간

엄수, 효율적 정보 전달, 행사내용 이해 용이라는 속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희성 요인은 놀거리 풍부, 즐길거리 풍부, 볼거리 풍부, 신명나게 함, 행사에 몰두 요소가 있었다. 신기성 요인에는 진기함, 감동적임, 매력적인 경관, 낭만적 경험, 모두 즐길 수 있음 요소가 있었다. 향토성 요인에는 행사내용의 향토성, 행사내용의 다양, 자부심 고취, 고향의 향수 요소가 있었다. 전통성 요인에는 토속신앙적임, 역사·문화적 가치, 종교적 분위기, 산과 바다에 접합 요소가 있었다. 체험성 요인에는 문화적 체험, 교양향상, 새로운 경험 요소가 있었다. 교육성 요인에는 가족중심으로 즐김, 행사내용 교육적 요소가 있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이미지측정을 위한 30개 항목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모두 0.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요인분석에 앞선 표본적합도는 30개 항목의 MSA 값이 모두 0.80 이상으로서 모두 적합하였다. 셋째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의 요인수가 7개로 이들의 총 분산 설명력은 56.6%였다. 넷째 추출된 요인은 이용성, 유희성, 신기성, 향토성, 전통성, 체험성, 교육성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다섯째 측정척도의 개념타당도에 해당하는 수렴타당도도 피어슨 상관계수가 0.420으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론적 타당도 재방문의사와 방문권유 의사 모두 1% 유의 수준에서 높은 축제이미지 측정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로써 축제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 김계섭의 연구

휘시바인(Fishbein)의 다속성 태도모형을 이용하여 '제12회 해운대 바다축제' 방문자 209 표본을 대상으로 이벤트관광의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 축제의 만족수준은 상당히 미약한 2.903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다 기대수준에 비해 경험수준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최종 분석되어 이벤

트 프로그램의 개선이 제기되었다.

특히 판별분석의 결과 태도값과 만족수준에 중요도가 큰 매력성은 역사 및 문화적 특성, 이용의 저렴성, 참여의 자유성 요인들이며 이 속성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속성으로는 현장정보의 풍부성이었으며, 환상성 및 진기성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긍정적 기여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기대수준과 경험수준간의 판별계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다축제의 특이성, 먹거리의 풍부성과 맛, 향토성 및 민속성과 같은 매력들이 프로그램 개선에 보완되어야 하고 부정적인 매력속성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편이 요구되었다.

설문지는 겟츠(Getz)가 제안한 이벤트 관광의 3대 매력속성인 필수서비스, 일반편익, 표적편익에 따라 20항목, 즉, 유락성, 다양성, 편리성 및 쾌적성, 주민의 친절성, 경험 및 교육성, 역사 및 문화특성, 이요의 저렴성, 참여의 자유성, 특이성, 정보의 특이성, 접근용이성, 먹거리 풍부성, 행사구성의 사실성, 게임의 다양성, 향토성 및 민속성, 환상성 및 진기성, 행사의 몰입성, 행사의 특이성, 상품의 구색 및 저렴성, 참여활동의 유희성으로 구성되었다.

(3) 이강욱의 연구

이강욱은 문화관광축제의 하나인 제18회 금산 인산축제(1998년)를 연구사례로 선정하고 이 문화관광축제가 지닌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기술의 연향평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획·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참여 관찰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나타난 동 축제의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안내판 및 휴식공간의 확보, 화장실 개선, 홍보의 다양화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외 가족

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비풍조의 개선, 외지상인에 대한 통제 등이며 특히 외국인을 위해서는 행사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해설책자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축제방문객 209명, 지역주민 236명, 지역상권 업소 183곳, 운영요원 및 주최자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접조사,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축제의 서비스품질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우선 방문자용으로는 총 32개항의 질문 중 방문자 만족에 대한 차원은 접근성, 안내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 식음료, 인삼관련기념품, 농산토산품, 환대성, 행사내용, 기타로 총 28개 차원을 만들었다.

다음에 지역주민용으로는 총 35개항의 질문 중 축제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기술에 대한 영향을 21개 차원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상권업소에 대해서는 총 39개 항의 질문 중 지역주민과 같은 차원의 21개 사항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운영요원・행사주최자에게는 총 42개항의 질문 중 지역주민과 같은 차원의 21 사항을 물었으며 추가로 만족도에 관하여 6개 차원(요원간의 협력, 주민의 참여도, 안내책자 수준, 기념품의 가격,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더 질문하였다.

(4) 함석종의 연구

함석종의 연구는 향토문화의 의미와 역할에서 향토문화와 문화권역의 설정, 축제와 이벤트의 의미검토, 향토 문화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향토문화제의 관광대상화의 과정으로서 관광머천다이징(상품기획)을 제시하였다. 관광・레저의 마케팅과 머천다이징의 의의를 고려하면서 향토문화의 과정으로서 관광머천다이징(상품기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객(지역주민과 외래관광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지향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가치관, 생활양식, 지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는 커뮤니티 지향의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존적 차원에서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주도되어야 한다. 넷째, 관광기업의 상품연계화 방안으로 상품지향의 관점에서 이윤극대화의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5) 장은주의 연구

장은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 있는 이벤트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둘째,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간환경에 대한 정비를 통해 편리성과 동시에 지역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 전구성원의 위식수준향상을 통하여 선진적인 지역이미지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을 대한 홍보 및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섯째, 지역 이벤트는 단기간에 열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이벤트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 계획과 이를 토대로 이벤트사업 추진단계마다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6) 이광진의 연구

이광진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전통민속축제에서 관광자원 이용활성화와 관광자원 복원화를 주장하였으며 활성화방안으로 첫째, 중앙중심의 문화체계

를 지역체계의 문화중심으로 전화해야 한다. 둘째, 각종 전통민속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각종 민속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각 지역의 전통민속축제가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전통문화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전통민속축제가 지역의 독특한 행사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각적인 경제적 수익성이 예견되는 전통민속축제이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문화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한 방편으로 전통민속축제의 보존과 정비에 대한 과학화 추구를 제안하였다.

(7) 이경모의 연구

이경모는 여행상품에 이벤트의 개념을 적용한 이벤트 여행상품의 개발 전략과 개발과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내·외 이벤트여행상품 개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이벤트 여행상품마케팅 계획수립, 마케팅 믹스, 시장세분화 전략을 통해 여행사 이미지 제고를 지향하는 방향의 전략, 상품 개발 경험의 축적을 통해 경쟁우위확보를 통한 저수익 탈피 전략, 특정 시장욕구를 중시하며 다품종 소량개발, 공동 주최자와 대리점 등을 통해 재무위험 분산, 참가자의 재고객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주장하였다.

(8) 정강환의 연구

백제문화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관광객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연구로써 1994년 한국방문의 해에 부여에서 개최된 백제문화제 관광객들의 방문동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해서'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근거리 핵심시장인 부여군이 40%를 차지

했고, 다음으로 중거리 지역권 시장인 충남과 대전지역에서 40.6%를 이루었으며, 충남・대전지역을 제외한 국내와 외국관광객을 포함한 원거리 관광객 시장이 약 20%에 이른다고 할 때 지역관광객 시장과 지역 외 관광객시장 비율이 4:6으로서 나타났다. 또한 정보원천에 있어서는 친구・친척의 구전을 통해서 축제정보를 얻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V를 통해서가 두 번째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지역축제의 경우 과거에는 관광객들의 경험을 통한 구전이 중요했지만 현재에는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나 홍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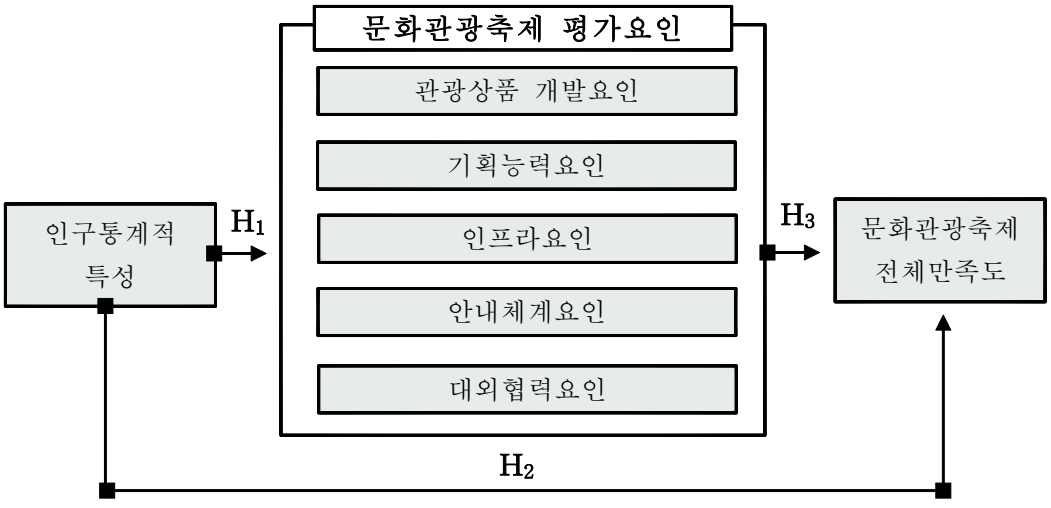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제주도 축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많은 연구가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축제 전반에 관하여 학계, 공무원, 축제기획 전문가, 관광관련업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의 축제의 기여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능력요인, 대외협력요인,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요인, 제도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평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설계된 연구모형은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 문화관광축제를 기획능력요인, 대외협력요인,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요인, 제도적 지원에 대한 평가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설정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H_1 :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평가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_2 :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_3 :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평가요인은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연구조사설계

1. 설문의 구성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사용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설문의 총 문항은 총 5부 7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내용상으로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 항목은 축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의 측정항목은 24문항, 현재 제주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24문항, 문화관광축제의 지역 기여도에 관한 측정항목은 1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문헌연구결과에 근거하여 5점 척도로 작성하였다.

<표 3-1> 설문의 구성

조사내용	문 항	설문항목	척 도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24	1-24	등간(Likert 5점)척도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평가	24	25-48	등간(Likert 5점)척도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평가	8	49-56	등간(Likert 5점)척도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평가	10	57-66	등간(Likert 5점)척도
기타 질문	4	67-70	등간, 명목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4	71-74	서열, 명목척도

2.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과학적 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 설계에 의해서 수집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지역은 조사대상이 학계, 공무원, 축제기획가 및 전문가, 관광관련업자, 관광객, 도민인 관계로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이므로 전체 축제를 참석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주 지역의 축제가 매우 다양하고 이를 모두 참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3개 이상의 축제를 참석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셋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참관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지각하게 되는 축제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그 표본을 일정 비율로 나타나도록 조사하였다.

넷째, 설문조사에 임하는 조사원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10명을 2명씩 5개조로 나누었으며 이들은 관광객과 도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학계, 공무원, 축제기획가 및 전문가에 대한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시점은 2004년 2월 9일(월)부터 2004년 3월 27일(토)까지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40부를 회수하였고 수집된 조사자료 중 응답이 부실한 것과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28부를 제외하여 최종 유효표본은 312부로 확정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2> 연구의 실증조사 방법 및 범위

연구대상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참가자
조사범위	도민, 관광객, 관광관련 학계, 공무원, 축제기획가 및 전문가, 관광관련업자
표본의 크기	340부
유효표본	318부
조사기간	2004년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3. 자료분석방법

실증연구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PC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기술적 통계분석과 요인분석,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관광축제 요인의 측정변수가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하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신뢰도계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설문항목이 측정변수를 측정하는데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베리맥스 직각회전방법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적인 특성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이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를 경험해본 도민, 관광객, 학계, 공무원, 축제기획가 및 전문가, 관광관련업자를 대상으로 2004년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설문소자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4-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성	173	55.4%	연령	20대	74	23.7%
	여 성	139	44.6%		30대	138	44.2%
직업	학 계	21	6.7%		40대	80	25.6%
	공무원	54	17.3%		50대 이상	20	6.4%
	축제기획가 및 전문가	3	1.0%	교육정도	고졸이하	51	16.3%
	관광관련업자	73	23.4%		대학재학/졸	214	68.6%
	관광객	32	10.3%		대학원재학/졸	47	15.1%
	도 민	129	41.3%				

전체 유효 표본 중 성별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173명으로 55.4%, 여성이 139명 44.6%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74명으로 23.7%, 30대가 138명으로 44.2%, 40대가 80명으로 25.6%, 50대 이상이 20명으로 6.4%로 나타나서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학계에 있는 표본이 21명으로 6.7%, 공무원이 54명으로 17.3%, 축제기획가 및 전문가가 3명으로 1.0%, 관광관련업자가 73명으로 23.4%, 관광객을 32명으로 10.3%, 도민은 129명으로 41.3%으로 도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51명으로 16.3%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재학 또는 졸인 경우에는 214명으로 68.6%, 대학원 재학 또는 졸인 경우에는 47명으로 15.1%를 차지하였다.

제2절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1. 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의도했던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이나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 타당성은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 측정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에 관한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된다. 그리고 측정하려는 속성이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하는데 한 가지 조작적 정의에 따른 측정결과만으로 개념을 완전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여 개념을 측정하고, 각 측정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개념 타당성은 조사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측정도구로 정확히 측정하였는가에 관한 문제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개념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에는 다속성 다방법 매트릭스(MTMM : multitrait multimethod matrix)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다변량 분석방법의 하나로 변수들간의 관계를 찾아낼 때 사용되며, 기본 원리는 항목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내어, 요인들간에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분석은 정보손실을 가져오기도 하나 잠재체계를 발견, 활용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직각회전 중 배리멕스(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추출 과정에 있어서는 고유치(eigen value) 기준을 적용하여 '1' 이상이 되는 요인에 대해 요인화 하였다. 이때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이 클수록 그 요인이 전체 요인구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총 분산 설명력(total variance explained)은 65.453%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양호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요인이 해당변수를 설명해 주는 정도를 의미하여 공통성(communality)은 총분산 중에서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비율을 의미한다. 요인별 요인 부하량, 공통분산, 고유치(eigen value) 같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쌍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 값은 0.92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 값은 3912.517이고 유의확률은 $p<0.01$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구 분		요인부하량	누적분산	eigen value	신뢰도계수
관광상품 개발요인	고유관광상품개발	.761	41.146	9.464	.8994
	체험형프로그램	.725			
	연계관광상품개발	.709			
	프로그램차별다양	.704			
	먹거리개발	.691			
	전문운영인력양성	.585			
	지방정보제도지원	.545			
기획능력요인	체계적 시장조사	.724	50.519	2.156	.8297
	홍보전략의개발	.720			
	전문적인축제기획	.669			
	아이디어개발	.649			
	행사기간시기선정	.556			
인프라요인	편의시설확충	.823	56.126	1.290	.7848
	숙박시설확충	.784			
	교통시설확충	.760			
	축제장접근편의성	.431			
안내체계요인	외국관광객수용	.766	60.894	1.096	.8197
	안내체계확립	.743			
	행사진행서비스	.679			
	교통체제개선	.558			
대외협력요인	재정확충자립향상	.796	65.453	1.049	.7318
	단체기관업체협력	.713			
	주민자발적참여	.690			
KMO : .92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 3912.517 유의확률 : 0.000***					

* p<0.1, ** p<0.05, *** p<0.01

그리고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제1요인을 “관광상품

개발요인", 제2요인을 " 기획능력요인", 제3요인을 "인프라요인", 제4요인을 "안내체계요인", 제5요인을 "대외협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2. 신뢰성 분석

신뢰성은 측정된 결과치의 정확성,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의존가능성과 관련된 개념들이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대상물을 반복하여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측정방법이 정확하여 믿을 수 있고, 변수를 측정하여도 항목 간에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 복수형태법, 반복법, 내적일관성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기준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Cronbach′ Alpha 계수의 값이 0.60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0.80 이상이면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통해 제1요인은 0.8994, 제2요인은 0.8297, 제3요인은 0.7848, 제4요인은 0.8197, 제5요인은 0.7318로 모두 0.6 이상으로 측정항목의 신뢰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가설 검증

1. 가설1의 검증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독립표본 t-검

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각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t-검증

검증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관광상품 개발요인	남	2.4682	.6324	1.460	.145
	여	2.3597	.6761		
기획능력요인	남	2.5769	.6459	-0.138	.891
	여	2.5871	.6524		
인프라요인	남	3.0665	.6390	3.811	.000***
	여	2.7896	.6365		
안내체계요인	남	2.6893	.5979	1.573	.117
	여	2.5719	.7200		
대외협력요인	남	2.5742	.6553	-0.574	.566
	여	2.6187	.7117		

* $p<0.1$, ** $p<0.05$, *** $p<0.01$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3>과 같이 나타났다.

관광상품 개발요인, 기획능력요인, 안내체계요인, 대외협력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요인에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성인 경우가 여성보다는 좀더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인프라요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연령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차이분석

검증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관광상품 개발요인	20대	2.4363	.5977	.088	.966
	30대	2.4306	.7127		
	40대	2.3893	.6204		
	50대 이상	2.4071	.5886		
기획능력요인	20대	2.6811	.5388	1.798	.148
	30대	2.6116	.7073		
	40대	2.4775	.6510		
	50대 이상	2.4200	.5146		
인프라요인	20대	2.8311	.5252	1.219	.303
	30대	2.9475	.6730		
	40대	3.0281	.7138		
	50대 이상	2.9875	.6513		
안내체계요인	20대	2.6250	.5540	.234	.873
	30대	2.6703	.7090		
	40대	2.5969	.6733		
	50대 이상	2.6125	.5931		
대외협력요인	20대	2.6486	.5940	.718	.542
	30대	2.6232	.7259		
	40대	2.5083	.7272		
	50대 이상	2.5333	.4104		

* $p<0.1$, ** $p<0.05$, *** $p<0.01$

연령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와 같이 관광상품개발요인, 기획능력요인,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 대외협력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학력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차이분석

검증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관광상품 개발요인	고졸이하	2.4006	.7324	.289	.749
	대학재학/졸	2.4099	.6450		
	대학원재학/졸	2.4863	.6095		
기획능력요인	고졸이하	2.5765	.6495	2.515	.083*
	대학재학/졸	2.6243	.6347		
	대학원재학/졸	2.3915	.6839		
인프라요인	고졸이하	2.7010	.6910	4.391	.013**
	대학재학/졸	2.9825	.6455		
	대학원재학/졸	3.0266	.5857		
안내체계요인	고졸이하	2.3235	.7147	7.249	.001***
	대학재학/졸	2.7021	.6357		
	대학원재학/졸	2.6809	.5982		
대외협력요인	고졸이하	2.4771	.6368	.903	.406
	대학재학/졸	2.6153	.6890		
	대학원재학/졸	2.6241	.6867		

* $p<0.1$, ** $p<0.05$, *** $p<0.01$

학력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평가 요인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와 같이 기획능력요인,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능력요인은 $p<0.1$ 수준에서 대학재학/졸인 집단에서 평균 2.982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지만 평균값이 3보다 적어 모든 집단에서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요인은 $p<0.05$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3.0266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체계요인은 $p<0.05$ 수준에서 대학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2.7021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6> 직업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차이분석

검증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관광상품 개발요인	학계	2.3878	.4019	3.411	.005***
	공무원	2.6243	.5635		
	축제전문가	3.0476	1.2481		
	관광관련업자	2.4070	.5941		
	관광객	2.6116	.6150		
	도민	2.2846	.7151		
기획능력요인	학계	2.1429	.5767	2.491	.031**
	공무원	2.7148	.6415		
	축제전문가	2.7333	.7572		
	관광관련업자	2.6027	.6346		
	관광객	2.5875	.6241		
	도민	2.5798	.6538		
인프라요인	학계	2.9524	.4375	3.640	.003***
	공무원	3.1759	.6896		
	축제전문가	3.2500	.6614		
	관광관련업자	3.0582	.5425		
	관광객	2.7344	.5955		
	도민	2.8236	.6991		
안내체계요인	학계	2.4643	.5080	1.844	.104
	공무원	2.7546	.6488		
	축제전문가	2.2500	.2500		
	관광관련업자	2.7568	.5270		
	관광객	2.6719	.5972		
	도민	2.5484	.7474		
대외협력요인	학계	2.6190	.5606	.288	.920
	공무원	2.5864	.6037		
	축제전문가	2.8889	1.0184		
	관광관련업자	2.6164	.6797		
	관광객	2.6667	.6720		
	도민	2.5556	.7305		

* $p<0.1$, ** $p<0.05$, *** $p<0.01$

직업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평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6>과 같이 관광상품 개발요인, 기획능력요인, 인프라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상품 개발요인은 $p<0.01$ 수준에서 축제전문가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능력인 경우에는 $p<0.1$ 수준에서 축제전문가가 평균 2.7333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요인의 경우에는 $p<0.01$ 수준에서 축제전문가 집단에서 평균 3.250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2의 검증

성별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7>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의 평균이 2.5549, 여성의 평균이 2.4532로 모두 3보다 적어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t-검증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전체 만족도	남	2.5549	.5843	1.464	.144
	여	2.4532	.6396		

* $p<0.1$, ** $p<0.05$, *** $p<0.01$

연령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8>과 같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의 평균이 2.6081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집단에서 평균이 3보다 작아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전체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연령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차이검증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전체 만족도	20대	2.6081	.5690	1.079	.358
	30대	2.4928	.6307		
	40대	2.4375	.6130		
	50대 이상	2.5500	.6048		

* p<0.1, ** p<0.05, *** p<0.01

학력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9>와 같이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2.528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모든 집단에서 평균값이 3 이하로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전체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9> 학력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차이검증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전체만족도	고졸이하	2.4706	.7029	.309	.735
	대학재학/졸	2.5280	.6025		
	대학원재학/졸	2.4681	.5458		

* p<0.1, ** p<0.05, *** p<0.01

직업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전체만족도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0>과 같이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전문가 집단에서 평균 3.333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민의 평균이 2.4341로 전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제전문가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평균이 3 이하로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가 대체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직업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차이검증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전체만족도	학계	2.5714	.5976	2.379	.039**
	공무원	2.6667	.5494		
	축제전문가	3.3333	1.5275		
	관광관련업자	2.4658	.5793		
	관광객	2.5313	.5671		
	도민	2.4341	.6231		

* $p<0.1$, ** $p<0.05$, *** $p<0.01$

3. 가설3의 검증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이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1>과 같이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 중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 대외협력요인은 전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광상품 개발요인과 기획능력요인은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상품 개발요인이 회귀계수 0.295로 종속변수인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능력요인은 회귀계수

0.224로 종속변수인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관광상품 개발요인과 기획능력요인이 종속변수인 전체만족도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R2)는 0.488로 전체만족도를 48.8%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의성도 F값 19.153에 대한 확률치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 대외협력요인은 축제 전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상품 개발요인과 기획능력에 대한 평가만이 전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상품 개발요인에는 고유한 관광상품 개발,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 연계관광상품의 개발, 축제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다양화, 먹거리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며, 기획능력 요인에는 체계적 시장조사 및 분석, 홍보전략의 개발, 전문적인 축제기획, 소재 및 아이디어 개발, 행사기간 및 시기 선정이 있다.

<표 4-11>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이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P-값
관광상품 개발요인	전체만족도	.295	.071	4.121	.000***
기획능력요인		.224	.068	3.311	.001***
인프라요인		.032	.061	.534	.594
안내체계요인		-.005	.069	-.085	.932
대외협력요인		-.044	.060	-.731	.465
상수=7.641	R^2=0.488	F-value=19.153	Prob=.000***		

* p<0.1, ** p<0.05, *** p<0.01

4. 기타 분석

성별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12>와 같이 소득고용증가,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주민유대강화, 지역문화발굴계승, 주민자긍심고취, 관광객만족향상, 주민여가환경개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고용증가는 $p<0.1$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지역이미지 제고는 $p<0.05$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유대강화는 $p<0.05$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발굴계승에 대한 평가는 $p<0.01$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긍심고취에 대한 평가는 $p<0.05$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만족향상은 $p<0.05$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차이분석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지역경제활성화	남성	3.0636	.8008	1.365	.173
	여성	2.9281	.9528		
소득고용증가	남성	2.861	.838	1.688	.092*
	여성	2.698	.865		
관광객유치확대	남성	2.7630	.8803	0.929	.353
	여성	2.6691	.8960		

비수기타개	남성	2.9191	.8243	1.351	.178
	여성	2.7842	.9384		
지역이미지제고	남성	3.1676	.8564	2.585	.010**
	여성	2.9065	.9239		
지역주민유대강화	남성	2.9422	.8121	2.262	.024**
	여성	2.7266	.8665		
지역문화발굴계승	남성	2.8844	.8058	2.906	.004***
	여성	2.6115	.8471		
주민자긍심고취	남성	2.9249	.8627	2.504	.013**
	여성	2.6835	.8256		
관광객만족향상	남성	2.9595	.7499	2.032	.043**
	여성	2.7770	.8344		
주민여가환경개선	남성	2.9942	.8318	1.383	.168
	여성	2.8561	.9291		

* p<0.1, ** p<0.05, *** p<0.01

연령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기여도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3>과 같이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의 모든 요인에서 20대 집단의 기여도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연령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차이분석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역경제활성화	20대	3.0405	.8348	.064	.979
	30대	2.9855	.8542		
	40대	3.0000	.9547		
	50대 이상	3.0000	.8584		

소득고용증가	20대	2.851	.855	.279	.840
	30대	2.746	.793		
	40대	2.813	.982		
	50대 이상	2.750	.716		
관광객유치확대	20대	2.7568	.9336	.164	.921
	30대	2.7174	.8628		
	40대	2.6750	.8969		
	50대 이상	2.8000	.8944		
비수기타개	20대	2.9324	.9116	1.873	.134
	30대	2.9420	.8777		
	40대	2.6750	.8682		
	50대 이상	2.7500	.7164		
지역이미지제고	20대	3.0000	.7402	.423	.737
	30대	3.1087	.8935		
	40대	2.9875	1.0125		
	50대 이상	3.1000	.9679		
지역주민유대강화	20대	2.8514	.8223	.249	.862
	30대	2.8333	.7602		
	40대	2.8250	.9908		
	50대 이상	3.0000	.8584		
지역문화발굴계승	20대	2.6622	.7812	1.158	.326
	30대	2.7681	.8131		
	40대	2.7750	.8711		
	50대 이상	3.0500	.9987		
주민자긍심고취	20대	2.7973	.8105	.243	.866
	30대	2.8478	.8186		
	40대	2.7625	.9311		
	50대 이상	2.9000	.9679		

관광객만족향상	20대	2.9189	.8562	.194	.900
	30대	2.8696	.7529		
	40대	2.8375	.8026		
	50대 이상	2.9500	.8256		
주민여가환경개선	20대	3.0135	.8679	.312	.816
	30대	2.9203	.8801		
	40대	2.9000	.8657		
	50대 이상	2.8500	.9881		

* p<0.1, ** p<0.05, *** p<0.01

학력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기여도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4>와 같이 관광객유치확대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p<0.01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3.234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소득고용증가 기여도에 대해서는 p<0.05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3.043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비수기타개 기여도에 대해서는 p<0.05 수준에서 대학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2.9439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지역이미지제고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3.383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지역주민유대강화 기여도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3.1277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지역문화발굴계승 기여도에 대해서는 p<0.05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3.0426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주민자긍심 고취 기여도에 대해서는 p<0.1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3.0638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다. 관광객만족향상 기여도에 대해서는 p<0.05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에서 평균 3.000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주민여가환경개선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이 평균 3.0638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요인에서 대학원재학/졸 집단이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기여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인 집단에서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기여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력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차이분석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역경제활성화	고졸이하	2.5686	.9645	8.773	.000***
	대학재학/졸	3.0561	.8373		
	대학원재학/졸	3.2340	.7861		
소득고용증가	고졸이하	2.569	.878	3.854	.022**
	대학재학/졸	2.785	.823		
	대학원재학/졸	3.043	.908		
관광객유치확대	고졸이하	2.5882	1.0616	1.078	.341
	대학재학/졸	2.7243	.8356		
	대학원재학/졸	2.8511	.9084		
비수기타개	고졸이하	2.5490	.9447	4.348	.014**
	대학재학/졸	2.9439	.8594		
	대학원재학/졸	2.8085	.8246		
지역이미지제고	고졸이하	2.6471	.9343	8.935	.000***
	대학재학/졸	3.0748	.8131		
	대학원재학/졸	3.3830	1.0540		
지역주민유대강화	고졸이하	2.5490	.9233	5.998	.003***
	대학재학/졸	2.8551	.7646		
	대학원재학/졸	3.1277	.9916		

지역문화발굴계승	고졸이하	2.5686	.9645	4.141	.017**
	대학재학/졸	2.7477	.7703		
	대학원재학/졸	3.0426	.9079		
주민자긍심고취	고졸이하	2.7647	.9714	2.331	.099*
	대학재학/졸	2.7757	.7789		
	대학원재학/졸	3.0638	1.0087		
관광객만족향상	고졸이하	2.6275	.9583	3.342	.037**
	대학재학/졸	2.9112	.7421		
	대학원재학/졸	3.0000	.7802		
주민여가환경개선	고졸이하	2.5490	.9014	6.138	.002***
	대학재학/졸	2.9953	.8585		
	대학원재학/졸	3.0638	.8445		

* p<0.1, ** p<0.05, *** p<0.01

직업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기여도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5>와 같이 관광객유치와 비수기 타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계 집단에서 평균 3.5238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관광객이 평균 2.8125로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고용증가 기여도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계 집단이 평균 3.429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지역이미지 제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계집단에서 평균 3.7143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유대강화, 지역문화발굴계승, 주민자긍심 고취, 관광객 만족향상, 주민여가환경 개선 기여도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두 학계 집단이 가장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값을 각각 살펴보면 3.7143, 3.5238, 3.7143, 3.2857, 3.4286으로 나타났다.

<표 4-15> 직업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기여도 차이분석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역경제활성화	학계	3.5238	.7496	3.711	.003***
	공무원	3.2037	.8328		
	축제전문가	3.0000	.0000		
	관광관련업자	3.0959	.8361		
	관광객	2.8125	.7378		
	도민	2.8295	.9196		
소득고용증가	학계	3.429	.811	3.918	.002***
	공무원	2.852	.737		
	축제전문가	3.000	1.000		
	관광관련업자	2.890	.792		
	관광객	2.656	.787		
	도민	2.628	.902		
관광객유치확대	학계	3.0476	1.0235	1.793	.114
	공무원	2.8704	.8697		
	축제전문가	3.0000	1.0000		
	관광관련업자	2.7123	.8413		
	관광객	2.8438	.6278		
	도민	2.5736	.9335		
비수기타개	학계	3.0000	.8944	.430	.828
	공무원	2.9630	.8679		
	축제전문가	3.0000	1.0000		
	관광관련업자	2.8630	.8550		
	관광객	2.8438	.6278		
	도민	2.7907	.9493		
지역이미지제고	학계	3.7143	1.0071	3.286	.007***
	공무원	3.1296	.8478		
	축제전문가	3.0000	1.0000		
	관광관련업자	3.0822	.8780		
	관광객	2.8125	.7803		
	도민	2.9535	.8915		

검증 및 집단변수		평 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역주민유대강화	학계	3.7143	1.0071	6.112	.000***
	공무원	2.8889	.7931		
	축제전문가	2.6667	1.5275		
	관광관련업자	2.9041	.7667		
	관광객	2.7500	.7184		
	도민	2.6822	.8099		
지역문화발굴계승	학계	3.5238	.8729	5.641	.000***
	공무원	2.9259	.9081		
	축제전문가	2.6667	1.5275		
	관광관련업자	2.7123	.7165		
	관광객	2.8438	.8076		
	도민	2.5814	.7776		
주민자긍심고취	학계	3.7143	.7838	8.110	.000***
	공무원	3.0926	.9167		
	축제전문가	2.6667	1.5275		
	관광관련업자	2.7534	.7598		
	관광객	2.5938	.6652		
	도민	2.6512	.8067		
관광객만족향상	학계	3.2857	.7838	4.285	.001***
	공무원	3.1296	.6456		
	축제전문가	2.6667	1.1547		
	관광관련업자	2.9726	.7988		
	관광객	2.7500	.8032		
	도민	2.6899	.7886		
주민여가환경개선	학계	3.4286	.9258	5.169	.000***
	공무원	3.0370	.7259		
	축제전문가	2.6667	1.1547		
	관광관련업자	3.1233	.8156		
	관광객	2.4063	.6148		
	도민	2.8372	.9420		

* $p<0.1$, ** $p<0.05$, *** $p<0.01$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는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축제 주관처에서 스폰서를 확보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제참가방문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4-16>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빈도분석

구 분	빈 도	퍼센트	유 효 퍼센트	누 적 퍼센트
관광관련 업체의 일정 금액 부담	45	14.4	14.4	14.4
축제 참가 방문객에게 일정 금액 부담	16	5.1	5.1	19.6
축제 주관처에서 스폰서 확보	96	30.8	30.8	50.3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	149	47.8	47.8	98.1
기타	6	1.9	1.9	100.0
합 계	312	100.0	100.0	

제주지역 축제전문기구 설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17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이 295명으로 9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전문기구 설립에 따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운영하려 한다면 제주도의 행정적인 구분을 탈피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갈 주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축제의 통합화에 따른 기존 축제업무를 관할하던 기관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표 4-17> 제주지역 축제전문기구 설립에 관한 빈도분석

구 분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절대 반대한다	1	.3	.3	.3
반대한다	16	5.1	5.1	5.4
보통이다	45	14.4	14.4	19.9
찬성한다	170	54.5	54.5	74.4
매우 찬성한다	80	25.6	25.6	100.0
합계	312	100.0	100.0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통폐합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도 찬성의견을 제시한 표본이 13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도 94명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축제가 너무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각각의 축제가 차별화의 성공을 얻지 못하여 모든 축제가 같은 형태로 진행되면서, 축제를 통합하여 내실 있고 차별화 된 축제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표 4-18>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통폐합방안에 관한 빈도분석

구 분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절대반대한다	6	1.9	1.9	1.9
반대한다	18	5.8	5.8	7.7
보통이다	60	19.2	19.2	26.9
찬성한다	134	42.9	42.9	69.9
매우찬성한다	94	30.1	30.1	100.0
합계	312	100.0	100.0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 관광객, 축제전문가 집단들이 축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나타내고 축제 내용 중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연구가 실시되었다.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9> 가설검증의 요약

가설	내 용	결 과
$가설_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평가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_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_3$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평가요인은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평가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인프라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기획능력요인,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광상품 개발요인, 기획능력요인, 인프라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만족도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제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요인이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한 결과 관광상품 개발요인과 기획능력요인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요인, 안내체계요인, 대외협력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관광축제평가 시 관광상품 개발요인과 기획능력요인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전체만족도도 증가하면 전체만족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두 요인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설 검증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체만족도 평가에서 거의 3이하의 점수로 축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축제가 뚜렷한 주제를 갖지 못하고 도민만이 즐기고, 먹거리 위주의 행사내용으로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축제를 감소시키고, 제주지역 축제를 통괄하는 하나의 기관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합기관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제5장 결 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지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지역의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바로 관광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관광축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문화관광축제의 성패에 따라 그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많이 조사되었으며, 축제의 특성상 작은 투자로도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평가 요인을 살펴보고 이것이 축제에 대한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축제전문기구 설립, 축제의 통폐합화 방안 등 현재 제주지역에서 축제와 관련되어 제안되는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 도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를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평균값이 거의 모두 3 이하이며 축제 전체만족도도 3 이하로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가 도·시·군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축제 행사를 진행해 나가지만 축제들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특화되지 못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관람객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축제에 대한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광상품 및 프로그

램 개발요인과 기획능력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주 지역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하는데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이 내용면에서 얼마나 부족한 면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살려야 하며, 연계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각각의 축제가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상품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살려내지 못한 관광상품,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축제는 다른 지역의 축제와 다른 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관광축제의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축제의 흐름을 살필 수 있어야 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개발하여 축제참여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주도의 축제 기획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기관과 학계의 도움을 받아 행사기간 및 시기,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내용, 형식면에서 알찬 지역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대상자의 대부분이 제주도에 축제를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축제에 대한 실망감을 통하여 체계적인 축제 기획을 바라는 설문대상자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현대시대에서 프로그램의 계획 및 기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집중과 선택의 문제”이다. 집중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기획을 하고 이를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에 앞서 문화클러스터의 형성을 먼저 제기하고 싶다. 각각의 문화자원을 개별적으로 성장시켜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이를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는 문화관련전문기구의 설립을 먼저 이뤄

내고 다음으로 축제전문기구와의 통합을 이뤄낸다면 제주도의 축제는 진실된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관광은 문화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다. 더구나 과거처럼 재정부담이 과중한 하드웨어적인 관광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덜한 소프트웨어적인 관광개발에 보다 많은 연구가 향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형축제와 달리, 지역축제 방문객들은 그 지역만의 특이성을 기대하고 축제에 참석한다. 그러므로 그 지역만의 향토성을 축제 안에서 살려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제주지역의 축제들은 그 형태나 프로그램 면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먹거리 중심의 축제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가 앞으로 제주도의 긍적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주 문화를 살리는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주지역 축제 요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수정하여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승익 외 3인, “축제 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제23권 제2호, 2000, p.247.

고승익・문성종・부석현・진현식, 「관광이벤트경영론」, 백산출판사, 2002, p.82.

김명자,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관광부, 1996, p.14.

김병철, 「강원도 문화관광축제 실태분석 및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1, p.1.

노연봉, 「수원성곽축제 활성화 방안」, 2001, p.13.

문화관광부, 「’96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1996.

삼성경제연구소, 「지역경제, 새로운 싹이 자란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0, p.15.

서연옥,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영문화재단주최 세미나초록집」, 1994, p.20.

서휘석・이동기, “물리적 환경이 지역축제의 만족과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자치 동계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p.69.

오순환, “문화관광축제의 연상도 차이-축제명과 지명간의 연상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제23권 제1호, 1999, p.213.

이광희,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서 관광개발」, 한국관광학회, 1994, pp.34-58.

이상일, 「놀이에 나타난 집단창작의욕」, 문화재관리국, 1982, pp.58-60.

이상일, 「한국축제의 기능과 구조」, 비교민속학, 집문당, 제9집, 1992, p.19.

이장주・조현상,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화에 관한 실증연구-우리나라 6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제24권 제1호, 2000, p.206.

임재해, 「한국의 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4, pp.279-285.

정강환,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Vol.11, No.3, pp.59-82.

정강환,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3호, 1996, p.62. 재인용.

정강환, 「이벤트관광전략 축제와 지역활성화」, 일신사, 1996, p.38.

정두진 외, 「관광이벤트」, 학문사, 2001, pp.49-51.

C. Law, *Urban Tourism: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 London: Cassell Publishing, 1994, pp.17-32.

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 Tourism*, New York: NVR, 1991, p.16.

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 Tourism*, New York: VNR, 1991, pp.37-57.

H. Cox, The Feast of Fools; A Theological Essay on Festivity and Fantasy, Cambridge, Mass., 1969, pp.7-12. 재인용.

ABSTRACT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Development Methods about Festival of Jeju

Yong-Cheol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oon Kang

Visitors' satisfaction with Jeju cultural festivals is commonly very low. This is very serious and a current problem in Jeju tourism.

The major aims for this research are to study and improve the methods of development for cultural festivals of Jeju, and to understand the demands of the tourist. We surveyed people who attended such festivals, asking about their motivation to attend, and their level(s) of satisfactio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oduce suggestions and make proposals through the analysis of our survey(s). The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objectives, methodology, and scope of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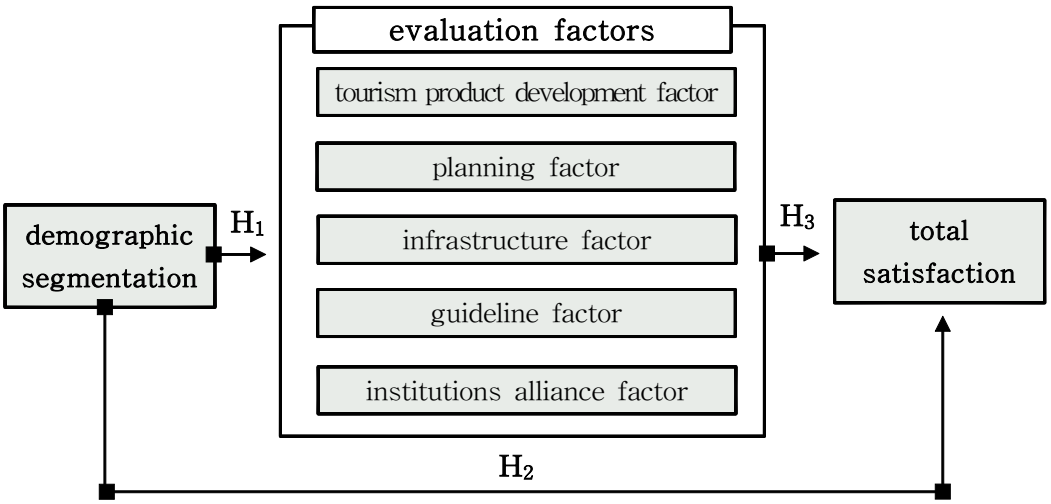
The second chapter contains a review of literature about regional festivals and foreign festivals.

The third chapter explains the design of the empirical method for the study.

The fourth chapter analyzes the festival evaluation factors and their influence on total satisfaction ratings. And,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segmentation is specifically considered.

Finally, the fifth chapter presents conclusions and suggestion for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at will improve the strategies of festival management in Jeju cultural festivals.



Analysis of variance method has been used to verify hypothesis 1, 2 which are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2, we found that there is not a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segmentation and total satisfaction of culture festivals. Multiple-regression method has been used to verify hypothesis 3.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3, we found that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evaluation factors and total satisfaction with culture festivals. Tourism products development factors and planning factors affect total satisfaction with culture festivals.

However,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segmentation on affective evaluation factors and total satisfaction cannot be corroborated. In this sense, further research could be helpful.

설 문 지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받으신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응답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은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설문에는 정답과 오답이 없으니 **귀하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2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 영 훈
연 구 자 : 행정학과 석사과정 김 용 철(064-710-3312)

Ⅰ.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된 항목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 기획능력요인					
1. 체계적 시장조사 및 분석	①	②	③	④	⑤
2. 홍보전략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3. 소재 및 아이디어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4. 전문적인 축제 기획	①	②	③	④	⑤
5. 행사기간 및 시기 선정	①	②	③	④	⑤
□ 대외협력요인					
6. 지역주민의 태도 및 자발적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재정 확충 및 자립도 향상	①	②	③	④	⑤
8. 관련단체/기관/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 인프라요인					
9. 숙박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10. 편의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11. 교통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 안내체계요인					
12. 안내체계 확립(안내책자 및 안내표지)	①	②	③	④	⑤
13. 외국관광객 수용태세 확립(통역, 외국어안내)	①	②	③	④	⑤
14. 행사진행 서비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15. 교통체제 개선(주차, 대중교통, 도로표지)	①	②	③	④	⑤
16. 축제장으로의 접근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요인					
17. 연계관광상품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18. 고유한 관광상품 개발	①	②	③	④	⑤
19. 먹거리 개발	①	②	③	④	⑤
20.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21. 축제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 제도적 지원					
22. 축제아이디어의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23. 전문 운영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24.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 **현재 제주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취약함	취약함	보통	훌륭함	매우 훌륭함
□ 기획능력요인					
1. 체계적 시장조사 및 분석	①	②	③	④	⑤
2. 홍보전략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3. 소재 및 아이디어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4. 전문적인 축제 기획	①	②	③	④	⑤
5. 행사기간 및 시기 선정	①	②	③	④	⑤
□ 대외협력요인					
6. 지역주민의 태도 및 자발적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재정 확충 및 자립도 향상	①	②	③	④	⑤
8. 관련단체/기관/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 인프라요인					
9. 숙박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10. 편의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11. 교통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 안내체계요인					
12. 안내체계 확립(안내책자 및 안내표지)	①	②	③	④	⑤
13. 외국관광객 수용태세 확립(통역, 외국어안내)	①	②	③	④	⑤
14. 행사진행 서비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15. 교통체제 개선(주차, 대중교통, 도로표지)	①	②	③	④	⑤
16. 축제장으로의 접근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요인					
17. 연계관광상품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18. 고유한 관광상품 개발	①	②	③	④	⑤
19. 먹거리 개발	①	②	③	④	⑤
20.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21. 축제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 제도적 지원					
22. 축제아이디어의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23. 전문 운영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24.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Ⅲ.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 목	매우 취약함	취약함	보통	훌륭함	매우 훌륭함
1.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능력	①	②	③	④	⑤
2. 축제 시 대외협력 능력	①	②	③	④	⑤
3. 축제와 관련된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구축	①	②	③	④	⑤
4. 축제와 관련된 안내체계	①	②	③	④	⑤
5. 축제와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	①	②	③	④	⑤
6. 축제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7. 축제 관련 제도적 요인	①	②	③	④	⑤
8. 축제에 대한 전체 평가	**①**	**②**	**③**	**④**	**⑤**

Ⅳ.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 목	전혀 기여하지 못함	기여하지 못함	보통	기여함	매우 기여함
1. 지역경제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주민 소득 및 고용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3.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관광시즌 확대(비수기 타개)	①	②	③	④	⑤
5. 지역 이미지 제고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주민간 유대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지역문화의 발굴, 보존, 계승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①	②	③	④	⑤
9. 관광객 만족도 향상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주민 여가환경 제공	①	②	③	④	⑤

Ⅴ. 기타 질문입니다.

1. 향후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하나만선택하십시오.

① 관광 관련 업체의 일정 금액 부담
② 축제 참가 방문객에게 일정 금액 부담
③ 축제 주관처에서 스폰서 확보
④ 행정부서에서 안정된 축제 재원 확보
⑤ 기타 _____

2. 제주도에 축제를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3. 앞으로 제주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조직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떠한 조직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제주도, 4개 시·군, 관광협회, 예총도지회 등이 각 역할 수행
②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신설 관광진흥원이 담당
③ 현행 축제 주관처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문기구 설립
④ 섬문화축제위원회의 축제전문기구로 상설기구화
⑤ 기타 _____

4. 제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 도,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하여 **통폐합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5. **전국적인 축제와 차별**화 할 수 있으며 **제주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축제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

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대학 재학/졸 ③ 대학원 재학/졸

4. 귀하의 **직업**은?

① 학계 ② 공무원 ③ 축제기획 및 전문가 ④ 관광관련업자 ⑤ 관광객
⑥ 도민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